

연구보고서
2018-11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성재민 · 오상봉 · 강동우

책머리에 부쳐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OECD 국가들 안에서 높은 편이며, 농림어업과 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 내수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통 내수서비스 부문 자영업 일자리는 공급이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것 외에도, 임대료 상승, 프랜차이즈화에 따른 가맹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자영업 진입과 유지, 소멸 같은 동태적인 변화를 통계 기반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제2장), 본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누가 자영업에 진입하고 소득은 어떤지를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는 연구(제3장),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자영업 영업이익률 결정요인과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제4장), 대형마트 진입이 주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제5장)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대안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하는 일자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 일자리의 일면을 보는 것일 뿐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 결과가 통계 자료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자영업의 생성, 유지, 소멸, 규모 변화와 소득 변화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영업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일조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정책 계발과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성재민·오상봉·강동우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들께 저자들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원고의 편집과 교열 교정을 맡아 주신 정철 팀장을 비롯한 학술출판팀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8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배 규 식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	---

제1장 머리말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

제2절 연구의 구성	2
------------------	---

제2장 자영업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황과 개선점

..... (성재민)	4
-------------------	---

제1절 데이터베이스의 개황	4
----------------------	---

제2절 데이터베이스별 이용 가능한 변수들	5
------------------------------	---

1. 경제활동인구조사	6
-------------------	---

2. 경제총조사	8
----------------	---

3. 도소매업조사	11
-----------------	----

4. 한국노동패널조사	13
-------------------	----

5.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	14
----------------------	----

제3절 데이터베이스 개선점	16
----------------------	----

제3장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소득 특성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 분석	(성재민) 19
-----------------	----------

제1절 연구의 구성	19
------------------	----

제2절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자영업 진입 분석	20
-----------------------------------	----

1. 자영업자들은 원래부터 자영업 일자리에서 일해왔나?	20
2. 자영업자의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특징	23
3.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31
제3절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경험	32
제4절 자영업자의 소득-임금근로자와의 비교 분석	37
제5절 소 결	41

제4장 자영업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영향	(오상봉) 42
제1절 서 론	42
제2절 기존연구	43
제3절 자료 및 방법론	45
1. 분석방법	45
2. 자 료	48
제4절 분석결과	52
1. 영업이익률 결정 요인	52
2.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56
제5절 소 결	64

제5장 대형 소매업 사업장 입점 이후 인근 지역의 소매업 분포

변화 : 사업체 행정 DB를 이용한 탐색	(강동우) 65
제1절 서 론	65
제2절 분석자료	67
1. 분석대상 지역의 선정과 분석자료의 구축	67
2.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분포 특성	68
3. 비교 지역의 구성	70
4.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범위와 거리구간 설정	71

제3절 분석결과	72
1. 총사업장 수 변화	72
2. 총종사자 수 변화	81
3.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	87
제4절 소 결	94
1. 주요 분석결과	94
2. 시사점	96
3. 연구의 한계	9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99
참고문헌	106

표 목 차

<표 3- 1>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21
<표 3- 2>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35세 이상 남성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22
<표 3- 3>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35세 이상 여성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22
<표 3- 4> 19차년도 자영업자 기준 이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유형	24
<표 3- 5> 19차년도 자영업자 기준 이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유형: 농림어업, 광업, 국제기관, 가구 내 고용 제외	25
<표 3- 6> 각 연도별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이동 추이	27
<표 3- 7> 2016년 자영업자의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창업방식	28
<표 3- 8> 2016년 자영업자 중 이전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의 업종 변화	29
<표 3- 9> 2016년 자영업자 중 이전 일자리에서도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였던 사람들의 업종 변화	30
<표 3-10> 2016년 자영업자의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연령과 지속기간	31
<표 3-11>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32
<표 3-12> 2010년 1월 임금근로자 중 2016년 12월까지 자영업을 경험한 사람의 규모와 비중	33
<표 3-13> 2007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 취업자별 향후 2016년까지의 자영업 경험 비중(연령대별, 성별)	34
<표 3-14> 2007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 취업자별 향후 2016년까지의 자영업 경험 비중(고용원 유무/연령대별, 성별)	35

<표 3-15>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연령별, 연도별 자영업 비중	36
<표 3-16> 2007년 임금근로자 근무 업종별 2016년까지의 자영업 경험 비중	36
<표 3-17> 현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이전 직장 지위별 현재 일자리 소득, 근속기간: 현재 일자리는 2016년 기준	37
<표 3-18> 현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이전 직장 지위별 현재 일자리 소득, 근속기간: 현재 일자리는 2016년 기준	38
<표 3-19> 연령과 자영업 여부, 소득 관계 회귀분석 결과	39
<표 3-20> 연령과 전 직장 종사지위 여부별 자영업 여부, 소득 관계 회귀분석 결과	40
<표 4- 1> 사업기간별 비중	48
<표 4- 2> 종사자 수별 비중	49
<표 4- 3> 일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수별 비중	49
<표 4- 4> 프랜차이즈 가맹 및 온라인거래 비율	50
<표 4- 5> 사업기간별 영업이익률	51
<표 4- 6> 종사자 수별 영업이익률	51
<표 4- 7> 인구·가구 변수의 평균값	51
<표 4- 8> 영업이익 결정요인: 전체 및 중분류	52
<표 4- 9> 영업이익률 결정요인: 세·세세 분류	54
<표 4-10>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전체 및 중분류	58
<표 4-11>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세·세세 분류	60
<표 5- 1> 총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73
<표 5- 2>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73
<표 5- 3> 2013년 기준 총사업장 수 표준화(천안시)	74
<표 5- 4> 2013년 기준 총사업장 수 표준화(청주시)	74
<표 5- 5> 이층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천안시)	75

<표 5- 6>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청주시)	76
<표 5- 7>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분석대상 지역)	78
<표 5- 8>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비교지역)	78
<표 5- 9>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분석대상 지역)	79
<표 5-10>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비교 지역)	79
<표 5-11>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천안시)	79
<표 5-12>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청주시)	79
<표 5-13> 총종사자 수 변화(천안시)	81
<표 5-14> 총종사자 수 변화(청주시)	82
<표 5-15>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천안시)	82
<표 5-16>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청주시)	83
<표 5-17>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 변화(천안시 분석대상 지역)	84
<표 5-18>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 변화(천안시 비교 지역)	84
<표 5-19>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 변화(청주시 분석대상 지역)	84
<표 5-20>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비교지역)	84
<표 5-21>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천안시)	85
<표 5-22>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청주시)	85
<표 5-23>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0m)	88
<표 5-24>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0~250m 미만)	89
<표 5-25>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250~500m 미만)	89
<표 5-26>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500~1,000m 미만)	90
<표 5-27>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0m)	91
<표 5-28>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0~250m 미만)	91
<표 5-29>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250~500m 미만)	93
<표 5-30>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500~1,000m 미만)	93

그림목차

[그림 2-1]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부가조사 설문지	7
[그림 2-2] 경제총조사 조사 공통항목	9
[그림 2-3] 경제총조사 산업별 특화 조사항목	9
[그림 2-4] 도소매업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11
[그림 2-5] 음식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가맹, 전자상거래 매출, 사업체 건물과 객석 설문	12
[그림 2-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일자리 시작 당시 상황 설문	13
[그림 2-7] 통계등록부 개념도	15
[그림 3-1] 각 연도별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이동 추이	26
[그림 3-2]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관계(local polinomial regression)	39
[그림 5-1] 천안시와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의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공간 분포	69
[그림 5-2]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총사업장 수)	77
[그림 5-3] 거리구간별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 (총사업장 수)	80
[그림 5-4]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총종사자 수)	83
[그림 5-5] 거리구간별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 (총종사자 수)	86

요약

이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자영업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진입-운영-폐업 중 자영업 진입부터 운영 측면,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 자영업 소득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에 주로 진입하는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마지막 일자리 성격이 강한지, 노동 생애 소득구조는 임금근로자와 크게 다른지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자영업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자영업 영업이익률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특히 프랜차이즈화와 온라인화, 고령화와 소규모 가구화라는 지난 10년의 트렌드의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형 종합소매점의 입점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체 연구를 정리하고 각 장별 결론과 시사점을 덧붙이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통계조사를 중심으로 개황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영업 인원 파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 높은 자료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으며, 자영업 업종 분포와 지역별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매년), 경제총조사(5년)가 있다. 자영업 매출 및 부가가치(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각종 비용 항목), 영업이익,

점포면적, 고용인원, 유무형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제총조사(5년, 전수), 도소매업조사(매년, 표집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매년, 표집조사, 1만개, 13개 업종)가 있다. 상가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제총조사, 도소매업조사(매년, 표집조사), 한국감정원(매년, 표집조사, 상권으로만 통계공표하나, 상가의 크기, 층별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여 회귀분석 목적에서는 활용가능성 존재) 자료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가임대료 정보의 가장 큰 한계는 보증금, 권리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력, 소득, 가구구성 등 인적 이력과 인구학 특성 관련 정보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의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업체의 산업동향을 보는 자료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의 가구, 그리고 인구학적 정보를 연계할 수 없어 양자를 아우르는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한계로 인해 자영업 진입-성공과 실패-은퇴 또는 퇴출의 전 과정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구축 중에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면 사업체의 매출과 비용,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료와 인구, 가구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등록부는 사회보험(임금은 건보 월보수)+국세 중 일용근로소득자 자료, 국세청 자료에 기반한 사업체 행정 데이터 및 각종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를 결합한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가 완성되어 연구용으로 공개될 경우 자영업자의 경영상황과 노동이력, 가구상태를 종합해 분석할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실제 경제활동등록부가 구축되더라도 통계청이 원자료를 공개하는 관행을 볼 때 심화된 분석에 필요한 연계기 제공 등을 할지, 얼마나 세분화된 자료를 원자료로 공개할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더라도, 권리금, 보증금, 상권특성 - 전통시장인지 등 -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

다. 보통 월세는 파악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은 파악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화가 크게 진행되어 왔는데 가맹비 등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급되는 비용은 조사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자영업 운영에서 크게 중요한 이들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있으나 실제 사용상에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세세분류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 지역은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식으로 통계자료에 내재된 이용상의 제약이 그런 예이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심도 깊은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제3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 진입과 소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유해 현재의 자영업 일자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상용직의 경우 상용직 일자리를 못 구할 때면 자영업 선택을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영업인 사람들은 자영업 일자리를 다음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상용직 일자리의 이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용-자영 간 이동만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사람들의 비중은 2001년 15.5%에서 2016년 7.2%까지 떨어졌으며,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한 비중은 대략 60% 초반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는 15년 전이나 2016년이나 큰 변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있다가 현재 자영업 일자리로 바뀐 사람들은 2001년 23.6%에서 2016년 30.3%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밀려나서든 경험을 쌓아서 창업하는 것이든 전직 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비중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는 경력 창업 비중도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직 종사상 지위별 평균 연령과 평균

지속기간을 보면, 이전에 다른 일자리가 없었다는 자영업자는 남성이 평균 51세, 이 일자리의 지속기간은 평균 21년으로, 대략 30세 근방에 시작해 20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 56세였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약 14년으로 대략 40세 초반에 시작해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속기간과 연령을 가지고 평균적인 시작연령을 보면 현재 자영업자는 30대 후반에 일자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경험을 분석해보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우리나라 연령대별 자영업 취업비중은 고령층이 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연령대별 유량으로 자영업 경험 비중을 분석해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자영업 진입도 활발하며 고령층은 오히려 자영업 경험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연령대에서 자영업이 많다고 해서 고연령대에 자영업 진입이 많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젊어서부터 자영업에 진입해 성공한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영위한 결과 고령층에 자영업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히 전 직장이 없는, 전직 상용직인, 전직 고용주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령-소득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적어도 최근 몇 년간 데이터로 분석해볼 경우 임금근로자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세 전후한 시기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주축이 나이 들면서 임금근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자영업으로 밀려들어온 경우였다면 나타나기 힘든 패턴이다. 그보다는 자영업 노동시장도 임금근로 시장처럼 자신에게 맞는 업태를 탐색해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소득이 상승하고, 일정연령이 지나면서 소득력이 약화되는 특성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2015 경제총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예측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쟁도가 낮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자영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낮았으며,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높은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가구 구조의 차이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구조의 변화는 자영업의 경영상황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구주 비중은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구조는 자영업 경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와 60대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구구조의 영향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업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예상대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가구 구조가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의 추정에는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다소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가구 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해당 업종의 자영업 집중을 적절히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5장은 통계청의 사업체 행정 DB를 이용하여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신규 입점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천안시와 청주시에서 2012

년 및 2013년에 신규 개업한 ‘백화점’ 또는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1,000m 미만 인근 지역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은 2012년 이전에 개업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존재한 지역이었으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는 지역이었다.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고,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비교지역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비교지역은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며, 두 번째 비교지역은 신규 대형 사업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2012년 이전에 개업한 기존의 대형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미만인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가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달리 하거나, 분석대상 지역 내 거리구간을 구분하였다.

먼저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입점 이후의 변화를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외 총소매업사업장 수로 살펴보았다. 천안시의 경우,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0m, 250m 미만, 500m 미만으로 점차 확대했을 때, 사업장 수가 2013년 비해 1.34~1.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 범위를 1,000m 미만으로 확장했을 때는 증가 정도가 감소하였다. 청주시의 경우, 분석대상 범위를 250m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 총사업장 수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가 정도를 보였다. 분석대상 지역을 거리구간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거리구간별 증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안시의 경우, 0m에서 1.2배, 0~250m 미만에서 0.97배 증가하였고, 250~500m 미만에서 1.6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500m 이상 구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 2.21배, 0~250m 미만에서는 7.62배 사업장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50m 이상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총소매업종사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천안시는 500m 이상에서 종사자 수의 증가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청주시의 경우, 250m 이상

범위에서 증가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을 거리구간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500m 미만에서는 0.72~1.15배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0~1,000m 미만 구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는 1.06배, 0~250m 미만 18.67배, 250~500m 미만 0.53배 종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1,000m 미만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대상 지역의 소매업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거리구간에 상관없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50~500m 미만 구간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장 증가가 많았다.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천안시의 경우와 다르게 다양한 소매업 산업분야의 사업장 증가가 500m 미만 구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는 250m 이내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과 거리구간에 상관없이 사업장의 증가는 대부분 1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은 단기적으로 지역상권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둘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지역상권의 성장은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기존 상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의 상권 변화는 신규 사업장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이내의 국지적 범위에 집중되고, 거리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제 1 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연구는 산업적 접근과 자영업 개인에 대한 접근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자영업자가 많은 특성을 가지는 산업에 대한 연구라면, 자영업 개인에 대한 접근은 누가 자영업에 진입하고, 자영업자는 어떤 식의 경제활동 양태를 보이며, 자영업 폐업 요인은 무엇인지 등 개인의 노동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기존 자영업 연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횡단면 지표 통계 생산에 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자영업자들의 경기인식이나 매출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영업의 생성 소멸, 자영업자 개인의 자영업 이력에 대한 동태적 분석 같은 종단면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이와 같은 종단면적 연구를 가능케 한 최초의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표본

크기가 작아 좀 더 깊숙이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가구 패널자료이다 보니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별 자영업자의 비용구조를 분석하고 부가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자영업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개괄하고, 자영업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기획되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로써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실제 분석을 통해 개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기획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적인 연구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 자영업의 동태적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자영업 진입과 자영업 소득, 자영업 진입/퇴출 관련 이슈 분석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였다.

자영업 진입은 누가 자영업에 진입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과거에 어떤 일자리에서 현재 자영업 일자리로 유입되었는지를 기초통계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영업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서하는 연구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에 중점을 두는 연구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특성 상 임금근로자 소득과 비교연구는 자영업 진입을 분석하는 장에 함께 배치하였으며, 영업이익률 연구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하는 특성 상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였다. 자영업 진입/퇴출 관련 이슈 분석은 지난 몇 년간 이슈였고 현재도 이슈인 대형종합소매점 신설의 영향 분석으로 선택하였으며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였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자영업 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자영업자의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먼저 자영업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배치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진입-운영-폐업 중 자영업 진입부터 운영 측면,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 자영업 소득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에 주로 진입하는지, 우리나라 자영업은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마지막 일자리 성격이 강한지, 노동 생애 소득구조는 임금근로자와 크게 다른지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자영업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배치하였다. 자영업의 5년 생존률이 3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신규 자영업자들은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되어 온 지도 오래이다. 이 장에서는 자영업 영업이익률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특히 프랜차이즈화와 온라인화, 고령화와 소규모 가구화라는 지난 10년의 트렌드의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형 종합소매점의 입점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래 제5장뿐 아니라 이번 연구 전체는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는 경제활동등록부 자료를 활용해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용 경제활동등록부는 구축 중간 단계에 있어 자료가 분석목적으로 완비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이로 인해 다른 장의 분석에 일부 경제활동등록부를 활용해 만든 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전면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5장의 분석은 이 경제활동등록부를 활용해 진행되었다. 통계청의 허락과 협조에 감사드린다.

제 2 장

자영업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황과 개선점

제1절 데이터베이스의 개황

이 장에서는 자영업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자영업 연구 분야는 산업적 측면부터 개인의 노동생애사와 관련된 분야까지 대단히 폭넓다. 여기서는 유망 자영업 업종 같은 산업적 주제보다는 자영업으로의 진입, 이탈결정, 생애사에서 소득원천으로서 자영업 소득과 임금소득 비교 같은 노동시장과 관련해 좀 더 밀접한 주제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정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통계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통계자료 중 자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 자영업 인원 파악 및 자영업 개인의 인적 특성 파악: 경제활동인구조사(매월)
- 자영업 업종 분포와 지역별 배치: 전국사업체조사(매년), 경제총조사(5년)
- 자영업 매출 및 부가가치(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각종 비용 항목), 영업이익, 점포 면적, 고용인원, 유무형자산: 경제총조사(5년, 전수), 도소매업조사(매년, 표집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매년, 표집조사, 1만 개, 13개 업종)

- 상가 임대료: 경제총조사, 도소매업조사(매년, 표집조사), 한국감정원(매년, 표집조사, 상권으로만 통계공표하나, 상가의 크기, 층별 임대료 정보 제공으로 회귀분석 목적에서는 활용가능한 자료).
단, 위 자료들의 한계는 보증금, 권리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력, 소득, 가구구성 등 인적 이력과 인구학 특성 관련 정보: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
- 자영업 매출 및 부가가치, 영업이익, 면적, 고용인원 파악, 자영업 개인의 인적 특성 파악, 가구 현황 파악: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사회보험(임금은 건보 월보수)+국세 중 일용근로소득자 자료, 자영업자인원 자료+각종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 단, 매출, 자영업 현원, 자영업자가 고용한 근로자 변동과 임금, 자영업자가 운영 중인 업체 수, 자영업자의 인적 특성, 자영업자의 과거 노동시장 이력은 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매년 가능하나, 부가가치, 영업이익, 임대료, 가구현황 등은 경제총조사 및 인구총조사와 연계 가능한 5년 구간에서만 가능
도소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가 커버하는 일부 영역은 매년 연계분석이 가능함.
- 이 외에 실시간 매출 동향, 업종별 자영업 창폐업 정보: 카드사 매출 정보(분석 데이터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 국세청 생활업종 창업 폐업 관련 월별 자료 공개 사이트 등

이상 개관된 자료들에 대해 제2절에서는 자영업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변수들을 일람하고, 제3장에서는 개선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2절 데이터베이스별 이용 가능한 변수들

이 장에서는 자영업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한다. 자영업 연구 분야는 산업적 측면부터 개인의 노동생애사와 관

련된 분야까지 대단히 폭넓다. 여기서는 유망 자영업 업종 같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자영업으로의 진입, 이탈결정, 생애사에서 소득원천으로서 자영업 소득과 임금소득의 비교 같은 노동시장과 관련해 좀 더 밀접한 주제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정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 경제활동인구조사

먼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고용현황을 파악하는 대표조사로 공식적인 자영업자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월별 조사 통계이다. 자영업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에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가 이용될 수 있다. 이 조사는 일종의 센서스 자료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이다. 경제총조사도 유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5년 주기 센서스 조사로 좀 더 풍부한 항목을 조사해 매출과 부가가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인구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조사한다. 따라서 자영업자 본인의 성별, 학력, 연령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적 특성이 조사되며, 자영업자로서 본인 업체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판매인지 음식 조리인지 관리인지, 업종이 무엇인지를 표준 직업 및 산업 대분류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직 1년 미만인 실업자 등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전 직장 종사상 지위와 전 직장 산업을 조사하므로 1년 이내에 자영업에서 이탈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규모가 얼마나 되며, 이들의 자영업 운영 당시 산업은 무슨 업종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격년 8월마다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를 통해 일자리 시작시점, 사업자금 조달 방법, 사업자금 규모, 창업 준비기간, 시작동기, 사업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 사업 시작 전 일자리 특성, 사업 유지 기간, 업종 전환 이유, 사업체의 주된 장소, 사업체 등록 여부, 산재보험 가입, 향후 계획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취업 대표통계 산출이 목적이므로,

(그림 2-1)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부가조사 설문지

72 귀하께서 운영하는(소속된) 사업체의 주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사업장(건물 등)
2. 자기 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3. 남의 집(방문 과외 등)
4. 거리(노점, 행사, 방문·이동판매 등)
5. 야외 작업현장(논, 밭, 길, 건설 및 보육공사 현장 등)
6.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선박 등)
7. 기타 ()

73 귀하께서 운영하는(소속된) 사업체는 어떤 형태입니까?

1.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 사업체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

(※ 무급가족종사자는 76 번으로)

74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사업 유지에 위한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임대료
2. 인건비
3. 재료비
4. 제세공과(카드수수료 포함)
5. 기타 ()

75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 (모든 자영업자) 귀하께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가입되었거나 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1. 사업장(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편)자
 4. 가입되지 않았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6 번으로)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귀하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가입되어 있음
 2. 가입되지 않았음

76 귀하는 사업체(일자리)에서 평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 ◆ 평소 1주일에 _____ 시간 일함
- ※ 지난 주 일한 시간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말함

71 현재 사업(일자리)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 □ □ □ 년 □ □ 월

- ※ 「동일업종에서 장소만 바꾼 경우」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응답
- * 동일업종이란? 주요생산·취급상품(서비스),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임

71-1 ~ 71-9 는 현재 사업(일자리)을 2017년 9월 이후부터 시작한 경우만 응답

71-1 현재 사업(일자리)을 시작하기 전(1년 이내)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경험한 일자리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 ① 임금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는 72 번으로)

71-2 현재의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필요한 사업 자금의 조달방법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 조달방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적금, 퇴직금, 명퇴금 등)
- ② 친지 또는 동일자의 자금
- ③ 친지 또는 동일자 이외 타인에게 빌려서 마련
- ④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 ⑤ 사채, 대부회사 등
- ⑥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 등
- ⑦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사업승계, 무자본창업 등)
- ⑧ 기타 ()

71-3 현재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5백만원 미만
- ② 5백만원 ~ 2천만원 미만
- ③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④ 5천만원 ~ 1억원 미만
- ⑤ 1억원 ~ 3억원 미만
- ⑥ 3억원 이상

77 현재 사업체(일자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1년 이내 확장할 계획임
2. 계속 유지할 계획임
3. 확장할 계획이 있으나, 여력 수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

3. 향후 3개월 계획임

(※ 동일업종에서 장소만 바꾼 경우, 는 그만 둘 것으로 보지 않음)

- ① 6개월 이내에 그만 둘 계획
- ② 6개월~1년 이내에 그만 둘 계획 (※ 78 번으로)
- ③ 1년 이후에 그만 둘 계획

4. 잘 모르겠음

(※ 1, 2, 4번에 응답한 경우는 ※ 70 번으로)
(※ 무급가족종사자는 일문 질문)

78 현재 사업체(일자리)를 그만두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현 사업에서 더 수익이 나온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2. 보다 적성에 맞는 다른 사업(업)을 하기 위해
3. 임금근로로 취업을 위하여
4. 향후 전망이 없어서(사상산업 등)
5. 현 사업이 부진하여
6. 건강문제 등 자신의 신변문제로 일하기가 곤란하여
7. 가족돌봄 등 자신외의 신변문제로 일하기가 곤란하여
8. 기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질문 끝

79 ~ 70-3 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응답

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지난 주의 사업(일)을 운영하기 위한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정보,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1. 예 (※ 질문 끝)
2. 아니오

79-1 지난 주에 종사한 사업(일)은 한 사업체나 업종에 집중되어, 업무의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아 직접 일하는 형태였습니까?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허시서비스 배달기사, 콜센터 콜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레미콘 차기사, 신용카드모집원, 대출모집원 등 다양)

1. 예
2. 아니오

(※ 질문 끝)

귀중한 시간을 배어 조사에 힘써주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71-4 현재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까지 걸린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 사업 시작을 결심하면서부터 실제로 사업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 ① 1~3개월 미만
- ② 3~6개월 미만
- ③ 6개월 ~ 1년미만
- ④ 1년 이상

71-5 현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져
- ②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 ③ 기타 ()

71-6 현재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사업관련 인허가, 지원기관 협조 등
- ② 사업 자금의 조달
- ③ 입지선정, 기술개발 및 시설 확보
- ④ 필요인력의 확보
- ⑤ 사업정보 경쟁노하우 습득
- ⑥ 판매선 확보 및 홍보
- ⑦ 기타 ()

71-7 현재 사업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① 다른 업종 사업 (※ 71-3 번으로)
- ② 동일 업종 사업
- ③ 현재 사업이 최초 사업 (※ 72 번으로)
- ④ 임금근로자

71-8 직전 사업 유지 기간(운영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미만
- ② 1년이상 ~ 2년미만
- ③ 2년이상 ~ 3년미만
- ④ 3년이상 ~ 5년미만
- ⑤ 5년이상

71-9 직전 사업에서 현재 사업으로 업종 전환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직전 사업보다 수익이 더 나온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 ② 직전 사업보다 적성에 맞는 다른 사업(업)을 하기 위해
- ③ 직전 사업이 전망이 없어서(사상산업 등)
- ④ 직전 사업이 부진하여
- ⑤ 기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설명자료 사이트,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04>.

세분된 업종, 어느 지역에서 자영업이 많은지와 같은 공표범위를 넘어서는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업종 대분류를 넘어서는 분석이나 지역 자영업 연구에는 활용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 역시 조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영업 연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범위는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어느 업종인지 등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데에 국한된다.

2. 경제총조사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를 조사하는 센서스 통계 조사이다. 전수자료라는 강력한 장점과 함께, 5년 단위라는 데이터 이용 가능 시점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5년 단위로 영업이익률 변동 같은 자영업 관련 지표 추세 통계를 산출하고 지역이나 좀 더 세분된 업종 단위로 분석하기엔 이 자료만한 데이터가 없다.

경제총조사는 조사 대상 기간 다음해 중반에 조사된다. 2015년을 위한 경제총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조사되었으며, 2015년 1년간 발생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경제총조사의 공통조사항목은 [그림 2-2]와 같다.

그러나 여러 산업을 조사하므로, [그림 2-3]과 같이 산업별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도 업종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경제총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상용, 임시 및 일용 근로자(월평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 수를 조사하며, 상용,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액도 조사한다. 경제총조사만이 아니라 통계청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개인경영 사업체의 소유주(동업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정상 영업시간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타 종사자는 업체에서 판매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이나 음식업체 등에서 일정 급료를 받지 않고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받는 자, 정상 근무일수의 1/3 이상을 업무에 증가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을 가리킨다.

제조업의 사업실적 관련 조사항목을 보면, 제품출하액, 부산물 및 폐품

(그림 2-2) 경제총조사 조사 공통항목

공통항목		모든 산업에서 조사하는 항목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창설연월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조직형태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⑨ 영업기간	⑩ 사업실적	⑪ 유형자산	⑫ 무형자산		
⑬ 자산총계	⑭ 자본금	⑮ 자본잉여금	⑯ 결산 마감월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설문지, 경제총조사 통계설명자료 사이트,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71>.

(그림 2-3) 경제총조사 산업별 특화 조사항목

특성항목		해당 산업에서만 조사하는 항목		
조사표(번호)	조 사 항 목			
광제조(9인 이하) (2)	① 제품별 출하액	②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광제조(10인 이상) (3)	① 유형자산(사업체단위)	②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③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④ 재고액	⑤ 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전기가스수도 (4)	① 연간 생산량			
건 설 (5)	① 매출형태별 수입액			
도 소 매 (6)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상품 매입차별 구입액 구성비	⑥ 상품 판매차별 매출액 구성비	
	⑦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숙 박 (8)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객실 수	⑥ 객실 이용건수	
	⑦ 매출형태별 수입액			
음식점 및 주점 (9)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업체 건물 연면적	⑤ 객석 수		
출 판 영 상 (10)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연구기술직 종사자수	
	④ 직능별 종사자수			
전문과학기술 (12)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연구기술직 종사자수	
학 교 교 육 (14)	① 보조금			
보 건 (15)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직종별 종사자수	③ 보조금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③ 직종별 종사자수	
사 회 복 지 (16)	④ 직능별 종사자수	⑤ 보조금		
	①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② 보조금	
통 합 서 비 스 (18) (E, L, N, R, P856-857, S96~97)	① 일일 평균 영업시간	② 온라인쇼핑 거래 여부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④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⑤ 이용인원(고객) 수			

* 산업별 특성항목이 없는 조사표(번호) : 농업, 임업 및 어업(1) / 운수업(7) / 금융 및 보험업(11) / 공공행정(13)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설문지, 「경제총조사」 통계설명자료 사이트,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71>.

판매액, 임가공 수입액, 수리수입액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매출이 제조 관련 물품 수입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 이외 부문의 매출도 임대수입액, 구입상품매출액, 기타 수입액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영업비용은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운반, 하역, 보관비, 기타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 영업이익을 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설문구조는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되는 광업제조업조사도 공유하고 있다. 이들 조사는 부가가치 계산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 조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계산할 경우 보통 생산액-직접생산비(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로 한다.

이 외에도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용광로, 요,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공구, 기구, 비품 등),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고 있으며,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 자산으로 조사하고 있다. 유형 및 무형 자산은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 감가상각비를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연간 감가상각비로 연말 잔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을 기준으로 사업실적 관련 조사항목을 보면, 매출액, 영업비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 영업비용은 1년간 사업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재료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기타 영업비용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으며(이상 음식점 기준/ 업종별로 업종 특성에 맞게 조사문항 구성), 영업이익도 매출액-영업비용 형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제총조사는 지난 10여 년간의 온라인화, 프랜차이즈화 경향을 반영해 온라인 거래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총조사는 자영업 관련 매출, 부가가치, 임차료, 영업이익 등 자영업 운영 관련 전반의 지표를 5년 단위로 파악할 수 있고, 원자료를 제공

하므로 세부 업종과 지역단위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 연구 기초 데이터로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3. 도소매업조사

도소매업조사는 표본 조사로 경제활동총조사의 조사항목들이 매년 조사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노점, 이동음식점업은 제외된다.

조사항목은 공통항목과 업종별 특성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공통항목으로 조사하는 항목은 사업체,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영업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사항, 사업체 정기휴무 일수, 사업실적이다.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특성항목으로 사업체건물 연면적, 매장연면적, 상품매입처별 구성액 구성비, 상품 판매처별 매출액 구성비,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를 조사하고 있다.

도소매업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하는지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나눠서 파악할 수 있으며 홈쇼핑이나 방문판매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도소매업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14-3 상품판매 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① 매장판매	② 방문판매	③ 인터넷판매	④ TV홈쇼핑, 전화, 우편판매		⑤ 기타	⑥ 합계
			③-1 모바일 판매			
%	%	%	%	%	%	100%

 ② 방문 판매 : 구매처(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인터넷 판매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1 모바일판매 : ③ 인터넷판매 매출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설문지, 「도소매업조사」 설명조사 사이트,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01026>.

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여부, 고용원 수, 근로시간, 연간매출액, 조사된 자영업 일자리에서 발생한 월평균 소득, 적자액,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업체 창업시 기업승계 여부, 사업체 투자금과 비용, 사업시작 시 지급한 권리금, 사업시작 시 지급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사업시작 시 들어간 인테리어 등 시설비, 사업비용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본인, 동업자, 은행, 사채, 정부보조 등), 창업과정의 어려움, 농림어업 자영업일 경우 논과 밭의 면적 시설재배 여부, 자영업 시작 동기와 사업을 택하게 된 이유, 창업 훈련 경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표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최대 단점인 이 조사는 시작 당시 들어간 권리금, 보증금, 해당 자영업체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소득 등 다른 조사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사항목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매년 추적 관찰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반적인 자영업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적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사라 하겠다.

5.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는 행정자료를 결합해 개발 중인 일자리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이다(그림 2-7 참조). 안정된 일자리를 주로 커버하고 있다고 알려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임금근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자료 등을 결합하여 자영업자까지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일자리 전체를 커버하는 자료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는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고, 최근 통계청 센서스 흐름이 행정통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어 개념상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와도 결합 활용이 가능하다.

이 등록부를 기반으로 기업생멸통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등이 발간되고 있으며, 각종 사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에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는 사업자 등록자료, 근로소득 지급명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사업소득 지급명세, 부가가치세 자료, 사업장 현황신고, 법인세 자료 등이 입수되고 있으며, 금액 변수보다는 근로자와 사업자 인원수,

(그림 2-7) 통계등록부 개념도

< 통계등록부 구성 현황 >



자료: 통계청, 『통계등록부 보고서』.

기업의 생멸 등을 파악하는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의 소득 항목은 가계 금융복지조사 검증에 활용되는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입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사업관련 매출과 비용을 신고하는 사업소득신고자료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입수되어 통계청의 사업체 대상 경제통계조사의 사업 실적 항목 대체나 검증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활동등록부는 각종 통계청의 기존 통계조사를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 통계청이 입수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한계가 있어 도소매업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우나 이들 조사를 모두 연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에는 취약했던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현재는 자영업 가구의 점포 영업이익 현황과 자영업 가구의 취업자 구성을 연계해 볼 방법이 없으나, 경제활동등록부

는 인구센서스와 연계가 가능하므로 인구센서스의 가구 정보와 연결하여 관련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도 노동패널을 이용해 자영업 가구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는 있으나, 표본이 너무 작아 심화된 분석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등록부 데이터는 이와 같은 기존 데이터의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패널화 연결도 가능하므로, 매년 변화하는 상황을 추적해 통계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 정보는 건강보험 자료를 기본으로 나머지 사회보험 자료를 연계해 보완적으로 활용해 구축하고 있으나, 사업자 사업소득은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입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절 데이터베이스 개선점

현재까지의 데이터 현황을 볼 때 향후 몇 년 이내에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면 사업체의 매출과 비용,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료와 인구, 가구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센서스와 행정자료 연계가 가능한 5년 간격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전수자료를 이용해 자영업 노동공급부터 산업적 측면까지 연구가 가능한 방향으로 데이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5년 구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최근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든지, 5년 생존율이 20~30%에 불과한 음식점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 경제활동등록부가 구축되더라도 통계청이 원자료를 공개하는 관행을 보면 심화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연계기 제공 등을 할지, 얼마나 세분된 자료를 원자료로 공개할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또 다른 해결 과제일 것이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는 다른 (행정)통계와 연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보험, 국세통계에 의존하다 보니 일괄

신고 문제가 있어 개별 사업장의 관련 행정을 본사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존재여부, 위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대형마트의 상권 영향을 분석하려면 대형마트 위치 확인이 필요한데 현재는 일괄신고로 인해 그런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행정자료에 의존해 사업체 정보를 구축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로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데이터 환경에서는 사업체의 산업동향을 보는 자료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의 가구, 인구학적 정보와 연계될 수 없어 양자를 아우르는 분석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이 자영업 진입-성공과 실패-은퇴 또는 퇴출의 전 과정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편의점 점포당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성공한 편의점주는 복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전체 수익액을 높이는 식의 운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자료로는 점포당 수익은 알 수 있으나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확보하는 총수익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보니 점포당 수익이 떨어지는 점만 부각되어 실제로는 중산층 수준의 자영업자가 많음에도 자영업자는 영세하고 임금근로에서 밀려난 사람이라는 다소 불균형한 지표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뿐 아니라 한 명의 자영업자가 복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상당하나, 우리나라 사업체조사에서는 복수사업체 운영 자영업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영업이 실패율이 높아 그렇지 성공을 위한 루트이자 중산층이 되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제대로 정착한 자영업자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영업에 진입해 성공하는 과정을 보기엔 현재의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상적인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더라도 권리금, 보증금, 상권 특성 - 전통시장인지 등 -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보통 월세는 파악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은 파악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화가 크게 진행되어 왔는데 가맹비 등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급되는 비용은 조사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자영업 운영에서 크게 중요한 이들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 운영과 관련해 유사 점포 간 밀집도가 문제라는 말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 밀집도 분석을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사의 정보를 사지 않는 한 표준산업분류 5자리 수준에서 상가단위 밀집도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권단위 분석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상권표본조사 같은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원자료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주요 상권에 한정된 정보이다.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위치별 세세 산업별 사업체 수 파악이 매년 가능하지만, 관련 데이터가 이와 같이 세분된 단위의 원자료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이 현실이다.

관련하여, 데이터는 있으나 실제 사용상에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세세분류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 지역은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식의 통계자료상의 이용제한이 있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심도 깊은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직 후 이행경로 분석이 상당히 축적되어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직 후 이행경로나 실직 후 가구 소득 상황변동 등 분석 자체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었으나, 향후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 장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소득 특성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 분석

제1절 연구의 구성

이 장에서는 자영업 창업과 유지에 이르는 과정과 소득 관련 각종 기초통계를 확인하고 기초통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몇 가지 분석을 한다. 기존 자영업 관련 통계들은 앞 장에서 본 것처럼 기업 생멸통계,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도소매업조사와 각종 사업체 센서스 자료, 국세청 자료 등으로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 취업자의 규모, 업종별 창업률이 얼마인지, 폐업은 어떤지 같은 단편적인 정보는 존재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창업하고 폐업에 이르는지, 창업과 폐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득 등 경제활동 양태는 임금근로자와 얼마나 다른지, 가구소득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등 전반적인 자영업자의 동태적인 모습에 대한 통계제시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하려면 개인의 경제활동을 몇 년에 걸쳐 추적하는 패널조사 또는 개인의 경제활동 정보를 소득이 발생한 모든 해에 대해 누적인 국세청 세금기록 같은 행정원시자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 패널 조사는 표본 수가 적어 미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어려운 대신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력과 가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동학을 보여주는 데에는 강점을 가진다. 반면 행정원시자료는 제한된 이용가능성 때문에

전반적인 동학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지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용량이 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데에 강력한 장점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개인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와 현재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구축 중인 경제활동등록부를 부분적으로 활용해 자영업 진입과 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신자료인 19차 개인조사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은 1,928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49명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10인 미만 고용의 자영업자가 526명이다. 보통 자영업자 분석을 할 때 고용원이 없거나 30인 미만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분석대상이 된다. 노동패널에서는 개인사업자 여부는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30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를 파악해보면 겨우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별도로 자영업자 규모제한을 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겠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절에서는 현재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경제활동 상태에 있었는지, 소득은 어떤지, 가구 상태는 어떤지 등을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특정시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자영업 경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처음부터 자영업자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주종이라는 제2장의 분석을 좀 더 확장하는 절이다. 제4절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특성을 분석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생애 소득 궤적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절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자영업 진입 분석

1. 자영업자들은 원래부터 자영업 일자리에선 일해왔나?

노동패널을 이용해 2016년 자영업자들이 생애 몇 번째 일자리에선 일

〈표 3-1〉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단위:%)

이번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자영업 일자리 경험횟수					일자리 횟수별 비중
	1회	2회	3회	4회	5회	
첫 번째 일자리	100.0					12.5
두 번째 일자리	72.3	27.7				19.4
세 번째 일자리	57.7	31.7	10.6			19.2
네 번째 일자리	44.9	32.7	17.3	5.2		15.1
다섯 번째 일자리	37.2	32.1	23.7	5.1	1.8	11.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표 3-1 참조). 여섯 번째 이상 일자리 비중은 높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이번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에 따라 자영업 일자리 경험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이번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12.5%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중 2번 모두 자영업 일자리인 사람은 27.7%, 임금근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은 72.3%로 나타났다.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세 번째 일자리인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영업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7%, 자영업 일자리만 한 사람은 10.6%, 한 번의 임금근로 일자리와 두 번의 자영업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은 31.7%로 나타났다. 일자리 횟수가 늘어나도 대체로 임금근로 일자리 경험횟수가 더 많아서,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네 번째 일자리인 사람 중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자영업 일자리로는 처음인 사람이 44.9%, 두 번째인 사람이 32.7%였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 일자리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해온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벗어난 연령대로 한정해 성별로 같은 분석을 해 보았다(표 3-2, 3-3 참조). 먼저 남성부터 보면, 현재 자영업자 중 이번 일자리가 다섯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 중 43.5%는 이전에 가졌던 4개의 일자리가 모두 임금근로 일자리였다.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것도 자영업 경험으로 포함된다. 이번 일자리가 다섯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 중 27.5%

22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는 자영업으로는 두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하여 나머지 3번의 일자리는 임금근로 일자리인 경우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현재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일자리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를 거쳐 현재의 자영업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3-2〉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35세 이상 남성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단위: %)

이번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자영업 일자리 경험횟수					일자리 횟수별 비중
	1회	2회	3회	4회	5회	
첫 번째 일자리	100.0					11.5
두 번째 일자리	74.4	25.6				20.2
세 번째 일자리	59.7	30.5	9.8			21.0
네 번째 일자리	46.1	30.8	18.3	4.8		14.0
다섯 번째 일자리	43.5	27.5	22.2	6.4	0.4	11.3

주: 일자리 횟수로는 다섯 번째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으나, 케이스가 얼마 되지 않아 표에서는 뺐음. 일자리 횟수별 비중은 11.5+20.2+21.0+14.0+11.3+표에는 제시되지 않은 여섯 번째 이상 일자리=100.0이 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3〉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35세 이상 여성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

(단위: %)

이번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자영업 일자리 경험횟수					일자리 횟수별 비중
	1회	2회	3회	4회	5회	
첫 번째 일자리	100.0					13.5
두 번째 일자리	63.4	36.6				17.6
세 번째 일자리	46.5	39.5	14.1			15.2
네 번째 일자리	35.8	37.5	19.4	7.4		16.5
다섯 번째 일자리	24.6	40.3	26.5	3.4	5.3	12.3

주: 일자리 횟수로는 다섯 번째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으나, 케이스가 얼마 되지 않아 표에서는 뺐음. 일자리 횟수별 비중은 11.5+20.2+21.0+14.0+11.3+표에는 제시되지 않은 여섯 번째 이상 일자리=100.0이 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일자리 횟수별로 현재 자영업자 중 이번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은 11.5%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영업자 중 11.5%는 현재 일자리가 처음 일자리라고 응답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영업 일자리 경험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이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남성 11.5%보다 소폭 높은 13.5%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 중 2회 모두 자영업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남성 25.6%에 비해 높은 36.6%로 나타났다. 이는 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자영업자의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특징

여기서는 현재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종사상 지위에서 일했는지를 분석한다. 전년도 종사상 지위가 아니라, 현재 일자리 직전에 가졌던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분석으로, t기와 t-1기 간의 마르코프 이행행렬이 아니다. 현재 일자리 이전에 가졌던 일자리가 없을 경우 전 직장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표 3-4>, <표 3-5>에서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현재 자영업자 기준이므로, 19차년도 개인 가중치 부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 3-4>는 농림어업 등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이며, <표 3-5>는 농림어업 등 종사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직전 일자리가 자영업이었던 사람은 현재 일자리에서는 31%가 상용직, 11.6%가 임시직 등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중이 50.9%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자영업으로 일하는 비중은 43.7%로 나타났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만,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 일할 가능성이 57.4%인 상용직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로 다른 종사상 지위로의 이동성이 임시, 일용직에 비해서는 낮으나 상용직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이었던 사람들은 현재 일자리에서는 주로 상용직이거나 자영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으로의 이동은 자영업 이동 비중의 절반 미만, 일용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19차년도 자영업자 기준 이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유형

(단위:%)

이전 직장\현재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전체
전 직장 없음	67.6	11.4	3.8	11.0	6.2	100.0
	29.8	18.3	12.3	12.2	28.4	23.2
상용직 근로자	57.4	10.9	4.8	23.1	3.8	100.0
	44.4	30.8	26.8	44.9	30.6	40.6
임시직 근로자	45.7	28.9	8.8	14.0	2.6	100.0
	13.8	31.7	19.3	10.6	8.0	15.8
일용직 근로자	31.6	17.5	31.2	16.0	3.6	100.0
	3.8	7.6	27.0	4.8	4.5	6.3
자영업	31.0	11.6	8.3	43.7	5.5	100.0
	6.7	9.1	12.8	23.6	12.3	11.3
무급가족종사자	28.3	12.0	4.7	27.7	27.3	100.0
	1.6	2.5	1.9	4.0	16.1	3.0
전 체	52.5	14.4	7.3	20.9	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이와 같은 결과는 상용직에 있던 이들은 상용직 일자리를 못 구할 경우 자영업 선택을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자영업인 사람들은 자영업 일자리를 다음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상용직 일자리로의 이동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두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용-자영 간 이동만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다음 일자리로 역시 상용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임시·일용직은 그다음 고려순위로 나타났다.

〈표 3-5〉를 통해 농림어업 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직전 일자리가 자영업이었던 사람은 현재 일자리에서는 33.4%가 상용직, 12.3%가 임시직 등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중이 55%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자영업으로 일하는 비중은 40%로 나타났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만, 58.8%인 상용직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로 다른 종사상 지위로의 이동성이 임시, 일용직에 비해서는 낮으나 상용직보다는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이었던 사람들은

〈표 3-5〉 19차년도 자영업자 기준 이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유형 : 농림어업, 광업, 국제기관, 가구 내 고용 제외

(단위: %)

이전\현재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전체
전 직장 없음	73.1	12.4	3.8	7.8	2.9	100.0
	29.8	18.5	12.1	9.3	18.0	22.5
상용직 근로자	58.8	11.1	4.7	22.3	3.2	100.0
	44.5	30.8	27.4	48.9	36.5	41.7
임시직 근로자	47.1	29.8	8.3	12.9	2.0	100.0
	13.8	32.0	18.8	10.9	8.8	16.1
일용직 근로자	34.3	18.1	31.8	13.4	2.4	100.0
	3.8	7.3	27.2	4.3	4.1	6.1
자영업	33.4	12.3	8.7	40.5	5.1	100.0
	6.7	8.9	13.5	23.3	15.6	11.0
무급가족종사자	33.2	14.6	2.9	25.4	23.9	100.0
	1.6	2.5	1.1	3.4	17.0	2.6
전 체	55.2	15.0	7.1	19.1	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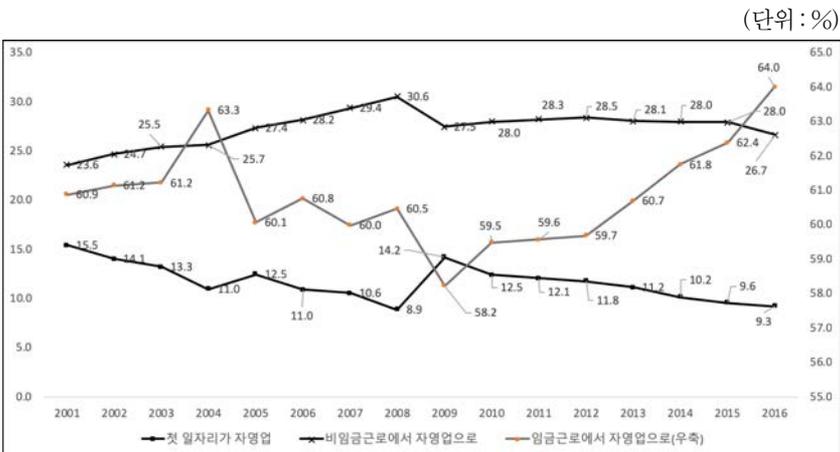
현재 일자리에서는 주로 상용직이거나 자영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으로의 이동은 자영업 이동 비중의 절반, 일용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인 사람들에게는 상용직 일자리를 못 구할 경우 자영업 선택을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농림어업 등을 제외하더라도 자영업인 사람들은 자영업 일자리를 다음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상용직 일자리로의 이동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표 3-5〉에서 자영업자인 사람의 이전 직장 종사상 지위를 보면, 이번 일자리가 첫 직장인 사람이 9.3%, 상용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48.9%, 임시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10.9%, 일용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4.3%, 자영업자였던 사람이 23.3%, 무급가족종사자였던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자영업자의 60% 이상은 이전에 임금근로자였다는 의미이며, 이전 직장도 자영업이었거나 첫 직장이 자영업자인 경우는 대략 30% 이상임을 보여준다. 이번 직장이 상용직 근로자인 사람들의 경우 이번이 첫 직

장인 비중은 29.8%이며, 과거에도 상용직이었던 사람은 44.5%,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비교해 자영업자는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직장인 비중이 현격히 낮고,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었던 비중은 소폭 높으며, 이전 직장이 자영업자였던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자 창업에도 경험이 필요한 점, 또 상당한 비중의 자영업자가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과정에서 창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작용한 차이일 것이다.

[그림 3-1]은 농림어업, 국제기관, 가내고용을 제외한 산업에서 현재 자영업자의 이전 직장 종사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현재 자영업자 중 이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비중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09년 기준으로 노동패널의 표본이 전국 확대 표본으로 표본 확대가 있었다. 기존 표본만 이용한 추이는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이번 자영업이 첫 일자리인 사람들의 비중은 2001년 15.5%에서 2016년 7.6%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한 비중은 대략 60% 초반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5년 전이나 2016년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그림 3-1) 각 연도별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이동 추이



주: 2009년부터는 전국확대표본 대상으로 계산된 값으로 시계열 연결되지 않음. 시계열 연결값은 <표 3-6> 참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있다가 현재 자영업 일자리로 바뀐 사람들은 2001년 23.6%에서 2016년 30.3%로 다소 증가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증가는 주로 2001~2007년 사이에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30% 내외에서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밀려나서든 경험을 쌓아서 창업하는 것이든 전직 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비중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비임금 근로에서 경험을 쌓아서든 창업에 실패해 재창업한 사람이 늘어나서든, 과거에 비해서는 경력 창업 비중도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6〉 각 연도별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이동 추이

(단위: %)

연도	첫 일자리가 이번 자영업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우측)		비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01	15.5		60.9		23.6	
2002	14.1		61.2		24.7	
2003	13.3		61.2		25.5	
2004	11.0		63.3		25.7	
2005	12.5		60.1		27.4	
2006	11.0		60.8		28.2	
2007	10.6		60.0		29.4	
2008	8.9		60.5		30.6	
2009	9.5	14.2	60.3	58.2	30.2	27.5
2010	8.4	12.5	61.1	59.5	30.6	28.0
2011	8.3	12.1	60.5	59.6	31.2	28.3
2012	8.5	11.8	60.9	59.7	30.6	28.5
2013	7.8	11.2	61.6	60.7	30.6	28.1
2014	7.1	10.2	62.7	61.8	30.2	28.0
2015	7.2	9.6	61.8	62.4	31.0	28.0
2016	7.6	9.3	62.1	64.0	30.3	26.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다음으로 <표 3-7>에서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창업 방식을 보면, 이번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가족에게 물려받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29.1%). 전 직장이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응답한 사람도 현재 자영업 일자리를 물려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이전 직장이 자영업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이번 일자리를 물려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6%대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업종 변동을 보면, 직전에 도소매업종 임금근로 일자리에 일한 사람 중 65%가량은 자영업으로 변신하면서도 여전히 도소매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숙박음식점업종 임금근로 일자리에 일한 사람은 60%가 자영업으로 변신하면서도 여전히 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임금근로 일자리가 제조업에 속한 사람은 자영업으로 변신하면서 33.9%만이 제조업에서 일했고, 20.9%는 도소매업, 8.3%는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2016년 자영업자의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창업방식

(단위:%)

이전 직장 지위	스스로 창업	부모 등 가족에게 물려받음	기타	전체
이번이 첫 직장	70.3	29.1	0.6	100.0
	8.5	30.7	1.3	10.3
상용직 근로자	87.1	6.8	6.1	100.0
	45.1	30.9	58.6	44.3
임시직 근로자	88.1	8.1	3.9	100.0
	11.9	9.5	9.6	11.5
일용직 근로자	92.6	4.6	2.8	100.0
	5.1	2.2	2.8	4.7
자영업자	88.9	6.5	4.7	100.0
	26.0	16.6	25.2	25.0
무급가족종사자	72.9	24.3	2.7	100.0
	3.5	10.3	2.5	4.1
전 체	85.6	9.8	4.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8> 2016년 자영업자 중 이전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의 업종 변화

(단위: %)

과거	현재													
	1	3	5	6	7	8	9	10	11	14	15	18	기타	소계
1	93.2	0.0	0.0	3.7	3.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4.9	0.0	0.0	0.2	0.6	0.0	0.0	0.0	0.0	0.0	0.0	0.0	0.0	1.3
3	4.5	33.9	5.2	20.9	8.3	5.2	2.6	2.3	3.9	1.0	0.5	9.7	1.9	100.0
	13.4	75.2	17.7	23.1	27.8	11.3	18.4	18.2	17.2	3.9	4.0	22.7	13.7	23.9
5	9.2	2.8	37.9	18.0	2.5	8.9	0.3	3.5	3.1	0.6	0.0	5.3	8.0	100.0
	13.0	2.9	61.2	9.6	4.1	9.3	1.2	13.0	6.5	1.1	0.0	5.9	27.4	11.4
6	5.9	2.4	0.0	65.4	6.5	6.0	1.3	0.6	2.5	3.1	0.0	4.1	2.1	100.0
	10.1	3.1	0.0	42.0	12.7	7.6	5.2	2.8	6.4	6.9	0.0	5.6	8.6	13.8
7	8.4	0.0	0.0	12.9	60.0	2.1	3.0	1.8	4.3	0.0	0.0	1.6	5.9	100.0
	4.3	0.0	0.0	2.5	35.0	0.8	3.6	2.4	3.3	0.0	0.0	0.7	7.4	4.2
8	4.6	0.0	4.6	5.3	4.2	66.1	2.3	4.5	3.8	0.0	0.0	0.7	3.9	100.0
	4.9	0.0	5.6	2.1	5.0	51.2	5.8	12.6	5.9	0.0	0.0	0.6	10.1	8.6
9	8.1	12.3	0.0	17.6	0.0	0.0	36.6	4.8	2.2	9.6	0.0	8.8	0.0	100.0
	3.8	4.3	0.0	3.1	0.0	0.0	40.5	5.9	1.5	5.9	0.0	3.2	0.0	3.8
10	8.7	0.0	5.2	9.6	4.0	0.0	2.4	43.7	6.5	9.8	4.0	6.2	0.0	100.0
	2.2	0.0	1.5	0.9	1.1	0.0	1.4	28.6	2.4	3.2	3.0	1.2	0.0	2.0
11	4.7	12.9	8.0	7.9	4.5	2.4	0.0	0.0	56.5	3.3	0.0	0.0	0.0	100.0
	2.2	4.5	4.2	1.4	2.4	0.8	0.0	0.0	38.7	2.0	0.0	0.0	0.0	3.7
13	35.0	9.9	0.0	20.1	3.9	26.7	0.0	0.0	4.4	0.0	0.0	0.0	0.0	100.0
	15.0	3.2	0.0	3.2	1.9	8.4	0.0	0.0	2.8	0.0	0.0	0.0	0.0	3.5
14	5.9	2.9	0.0	12.0	1.7	0.0	2.3	0.0	6.5	56.0	6.4	0.9	5.4	100.0
	5.8	2.1	0.0	4.4	1.9	0.0	5.3	0.0	9.4	71.4	18.8	0.7	12.8	7.9
15	7.1	3.6	4.8	6.4	3.5	1.6	1.2	2.7	2.0	7.8	53.5	3.8	2.0	100.0
	3.3	1.2	2.6	1.1	1.8	0.6	1.3	3.4	1.4	4.7	74.3	1.4	2.3	3.8
18	1.4	3.3	0.5	10.3	1.7	8.4	2.1	1.3	1.8	0.0	0.0	69.1	0.0	100.0
	1.5	2.6	0.6	4.0	2.0	6.3	5.1	3.6	2.7	0.0	0.0	55.9	0.0	8.3
19	0.0	0.0	0.0	25.2	74.8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1	1.1	0.0	0.0	0.0	0.0	0.0	0.0	0.0	0.0	0.1
기타	12.2	2.5	12.3	13.7	4.9	10.9	10.7	7.6	2.5	1.6	0.0	5.9	15.2	100.0
	5.9	0.9	6.8	2.5	2.7	3.9	12.3	9.7	1.8	1.0	0.0	2.3	17.8	3.9
소계	8.1	10.8	7.1	21.6	7.1	11.0	3.4	3.1	5.5	6.2	2.7	10.2	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은 농림어업, 3 제조업, 5 건설업, 6 도소매, 7 숙박음식, 8 운수 통신, 9 금융보험, 10 부동산임대, 11 정보처리 연구 전문과학기술, 14 교육, 15 보건사회복지, 18 협회 수리 기타 개인, 기타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영화방송오락문화, 하수 청소가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반면, <표 3-9>에서 보듯이 직전에도 자영업 일자리에서 일한 사람들은 도소매업 → 도소매업 이동이 46.9%, 숙박음식점 → 숙박음식점 이동은 51%로 임금근로 → 자영업 전직 시보다 동종업계 유지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 → 자영의 경우 도소매 → 농림어업, 도소매 → 제조업,

30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도소매 → 건설업 이동이 컸다. 숙박음식은 숙박음식 → 제조, 숙박음식 → 도소매가 컸다.

〈표 3-9〉 2016년 자영업자 중 이전 일자리에서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였던 사람들의 업종 변화

(단위:%)

과거	현재													
	1	3	5	6	7	8	9	10	11	14	15	18	기타	소계
1	71.6	3.9	1.7	7.6	5.4	4.6	0.0	0.0	0.0	0.0	0.0	1.3	3.9	100.0
	43.1	5.5	2.6	3.7	3.6	5.1	0.0	0.0	0.0	0.0	0.0	2.0	9.0	9.6
3	3.1	32.2	4.5	13.6	2.9	6.7	7.1	16.5	0.0	0.0	0.0	13.4	0.0	100.0
	1.2	29.6	4.6	4.2	1.3	4.8	8.8	21.4	0.0	0.0	0.0	13.2	0.0	6.2
5	6.6	0.0	65.4	0.0	3.2	10.8	2.6	0.0	0.0	9.0	0.0	0.0	2.4	100.0
	1.7	0.0	43.5	0.0	0.9	5.0	2.1	0.0	0.0	6.0	0.0	0.0	2.3	4.0
6	9.3	6.1	7.4	46.9	7.3	5.5	2.7	4.6	2.4	0.0	0.0	5.1	2.9	100.0
	14.0	21.7	29.3	56.7	12.1	15.3	12.8	22.9	39.8	0.0	0.0	19.5	16.2	23.9
7	2.0	12.4	0.8	20.8	51.0	4.1	0.7	4.6	0.0	2.9	0.0	0.8	0.0	100.0
	1.9	28.4	2.1	16.2	54.9	7.4	2.2	15.0	0.0	7.6	0.0	1.8	0.0	15.5
8	15.0	0.0	0.0	7.0	3.9	70.7	0.0	0.0	0.0	0.0	0.0	0.0	3.4	100.0
	6.0	0.0	0.0	2.3	1.7	52.5	0.0	0.0	0.0	0.0	0.0	0.0	5.1	6.4
9	4.6	2.9	4.9	12.3	7.8	0.0	52.0	0.0	0.0	0.0	0.0	10.5	4.9	100.0
	1.2	1.8	3.4	2.6	2.2	0.0	43.1	0.0	0.0	0.0	0.0	6.9	4.8	4.1
10	6.6	4.1	5.5	3.5	5.6	0.0	11.0	35.8	0.0	11.9	0.0	15.9	0.0	100.0
	1.6	2.3	3.4	0.7	1.5	0.0	8.3	28.1	0.0	7.5	0.0	9.5	0.0	3.7
11	0.0	9.2	0.0	7.6	45.4	0.0	0.0	10.3	27.5	0.0	0.0	0.0	0.0	100.0
	0.0	3.4	0.0	0.9	7.8	0.0	0.0	5.3	46.9	0.0	0.0	0.0	0.0	2.5
14	0.0	5.5	2.6	3.6	2.8	0.0	8.5	0.0	0.0	77.0	0.0	0.0	0.0	100.0
	0.0	4.5	2.4	1.0	1.1	0.0	9.4	0.0	0.0	71.1	0.0	0.0	0.0	5.5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7	68.3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1	54.4	0.0	0.0	0.8
18	3.7	0.0	0.0	14.5	15.0	0.8	0.0	3.3	0.0	4.1	8.0	45.9	4.8	100.0
	1.3	0.0	0.0	4.0	5.7	0.5	0.0	3.8	0.0	3.8	45.6	40.2	6.3	5.5
기타	36.1	1.5	4.3	12.4	8.3	6.6	5.3	1.4	1.6	0.0	0.0	3.5	19.1	100.0
	28.1	2.7	8.7	7.8	7.2	9.4	13.3	3.5	13.4	0.0	0.0	6.9	56.3	12.4
소계	15.9	6.7	6.0	19.8	14.4	8.6	5.0	4.8	1.5	6.0	1.0	6.3	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은 농림어업, 3 제조업, 5 건설업, 6 도소매, 7 숙박음식, 8 운수 통신, 9 금융보험, 10 부동산임대, 11 정보처리 연구 전문과학기술, 14 교육, 15 보건사회복지, 18 협회 수리 기타 개인, 기타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영화 방송오락문화, 하수 청소가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10〉 2016년 자영업자의 전 직장 종사상 지위별 연령과 지속기간

(단위: 세, 년)

이전 직장 지위	평균 연령		평균 지속기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번이 첫 직장	51	56	21.4	14.9
상용직 근로자	51	48	13.0	8.7
임시직 근로자	49	46	10.4	5.5
일용직 근로자	58	55	15.0	9.6
자영업자	55	53	11.1	8.0
무급가족종사자	55	54	13.6	11.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전직 종사상 지위별 평균 연령과 평균 지속기간을 보면(표 3-10 참조), 이전에 다른 일자리가 없었다는 자영업자는 남성은 평균 51세, 이 일자의 지속기간은 평균 약 21년으로, 대략 30세 근방에 시작해 20년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 56세였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약 14년으로 대략 40세 초반에 시작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아마도 결혼, 자녀 출산 등으로 30대를 보낸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출발했다면 이와 같은 연령과 지속기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표 3-11〉을 보면,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도 과거에 비해 다소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미취업이거나 가구주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이 거의 80%(=45.8+33.5%)였다면 미취업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001년 45.8%→2016년 40.3%로 5%포인트 남짓 떨어졌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은 2001년 33.5%→2016년 21%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은 2001년 11.8%에서 2016년 22.3%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배우자가 미취업인 비율이 높긴 하지만, 미취업이 아니라면 가구주를 도와 배우자도 일을 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고, 대신 근로자로 맞벌이화하는 경향은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표 3-11〉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단위:%)

농림어업 제외	미취업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2001	45.8	11.8	3.1	0.8	5.0	33.5
2002	44.1	13.2	3.2	1.3	6.3	31.9
2003	45.1	14.0	2.7	1.6	5.7	30.8
2004	43.4	13.1	2.4	2.7	5.2	33.2
2005	46.1	13.6	2.3	3.2	6.0	28.9
2006	44.1	13.8	2.7	3.2	6.8	29.3
2007	44.8	15.0	2.9	2.2	7.8	27.2
2008	44.0	15.7	3.8	2.0	7.6	26.8
2009	44.2	14.0	5.8	2.3	8.4	25.3
2010	41.6	14.6	6.1	1.8	9.7	26.3
2011	42.6	16.0	6.7	1.9	8.9	23.9
2012	39.9	17.6	6.3	2.4	9.3	24.5
2013	41.6	16.1	6.1	2.2	9.0	24.9
2014	43.6	16.6	6.5	1.7	7.8	23.8
2015	43.0	19.2	6.2	1.8	7.9	21.9
2016	40.3	22.3	5.4	1.8	9.2	21.0

주: 농림어업, 국제기구, 가구 내 고용은 제외한 수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제3절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경험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를 활용해 2010년 1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후 약 7년간 추적했을 때 자영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특성별로 확인해 보았다(표 3-12 참조).

2010년 임금근로자 11백만 명 중 약 11.6%가 자영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연령 기준 남성은 15~29세가 11%, 30대가 13.9%, 40대가 13.8% 등으로 나타나 주력 연령층에서 자영업 창업이 활발하고 60세 이상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2010년 1월 임금근로자 중 2016년 12월까지 자영업을 경험한 사람의 규모와 비중

(단위: 명, %)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 경험자	비중
전 체		11,604,615	1,343,102	11.6
남성	15~29세	1,237,831	136,145	11.0
	30대	2,436,978	338,842	13.9
	40대	2,043,773	282,230	13.8
	50대	1,190,752	150,271	12.6
	60세 이상	465,774	35,876	7.7
여성	15~29세	1,264,612	91,544	7.2
	30대	1,248,024	135,054	10.8
	40대	1,049,648	121,573	11.6
	50대	520,206	44,490	8.6
	60세 이상	146,769	7,071	4.8
업종	농림어업	4,089	780	19.1
	광업	470	154	32.8
	제조업	53,265	12,985	24.4
	전기가스수도	571	207	36.3
	하수폐기물 등	2,425	693	28.6
	건설업	60,676	13,021	21.5
	도소매	71,075	15,621	22.0
	운수창고	18,936	3,711	19.6
	숙박음식	8,331	1,272	15.3
	출판영상방송통신	12,218	3,300	27.0
	금융보험	7,080	1,355	19.1
	부동산임대	162,877	15,913	9.8
	전문과학기술	19,052	4,731	24.8
	사업시설지원	9,998	2,521	25.2
	공공행정	1,012	168	16.6
	교육	7,227	1,461	20.2
	보건 및 사회복지	24,150	2,783	11.5
	예술스포츠여가	4,428	995	22.5
	협회단체수리기타	25,942	5,974	23.0
기타	3,414	853	2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표 3-13〉 2007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 취업자별 향후 2016년까지의 자영업 경험 비중(연령대별, 성별)

(단위:%)

2007년 연령	남성	여성	전체
15~29세	14.3	7.3	10.3
30대	14.6	10.5	13.3
40대	14.5	11.5	13.3
50대	12.2	10.7	11.7
60세 이상	5.2	11.7	7.5
전체	13.5	9.9	12.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여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영업 창업은 30대와 40대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 보면 사업시설지원,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20%를 상회하는 활발한 수치를 보였으며, 숙박음식점업은 그에 비하면 훨씬 낮은 15%의 경험률을 보였다. 이를 보면 평균임금이 높아서 자영업주로 이동하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자영업 유입이 활발한 것처럼 보인다(도소매, 건설업). 이상의 수치는 아직까지 확충 중에 있는 경제활동등록부를 이용해 확인한 수치이므로 노동패널로도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았다.

〈표 3-13〉의 경우처럼 노동패널로 보아도 노동시장 주력 연령대에서 창업이 활발한 것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약 10년을 추적해 볼 때 12%의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당시 15~29세, 30대, 40대의 자영업 경험률이 10%대 초반으로 균일하게 나타나 주력 활동 연령대에서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15~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0%대 초반의 창업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남성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고용원 유무별로 나누어보면(표 3-14 참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창업은 15~29세부터 40대, 즉 10년 뒤이므로 15~29세부터 50대 초중반 사이의 창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창업은 남성은 은퇴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차이가 없는 창업률을 보였다. 투자위험이 있는 고

(표 3-14) 2007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 취업자별 향후 2016년까지의 자영업 경험 비중(고용원 유무/연령대별, 성별)

(단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5~29세	5.4	1.9	3.4	9.9	6.1	7.7
30대	7.5	2.8	6.0	9.2	7.6	8.7
40대	6.0	3.2	4.9	8.6	7.2	8.1
50대	2.2	1.4	1.9	10.1	8.3	9.5
60세 이상	0.5	0.8	0.6	5.2	6.7	5.7
전체	5.4	2.3	4.1	9.1	7.1	8.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용원 있는 자영업자 창업은 주력연령계층에서 활발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은 남성이 고연령층에서는 활발하지 않지만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활발하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 연령대별 자영업 분포하고는 많이 다르다 (표 3-15 참조). 연령대별 자영업 비중을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모습이다. 두 결과를 연관 지어 해석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현상은 젊어서부터 진입해 자영업 부문에 누적된 인원이 고연령대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고연령대일수록 자영업 부문으로의 진입이 활발해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즉,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늙어서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늙어서는 오히려 자영업 진입이 적거나 젊은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인데(여성 고용원 없는 자영업), 젊어서 진입해 자영업 부문에 정착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지속 활동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을 떠올릴 때 흔히 생각하는 “임금근로 일자리에 밀려나 근근이 자영업 일자리를 영세하게 하고 있는” 근로계층이라는 이미지가 일부만 사실이고, 현실의 자영업자 중 또 다른 일부는 젊어서부터 자영업 부문에 뛰어들어 자리잡는 데에 성공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표 3-15>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연령별, 연도별 자영업 비중

(단위:%)

	농림어업 포함			농림어업 제외		
	2004	2010	2017	2004	2010	2017
15~29세	5.9	5.0	4.0	5.9	5.0	4.1
30대	21.7	15.3	13.1	21.3	15.0	12.8
40대	33.2	25.3	21.9	32.0	24.4	21.4
50대	39.0	33.5	27.9	35.5	31.2	26.3
60세 이상	51.5	45.5	37.7	39.3	34.2	29.5
전 체	27.2	23.5	21.3	24.0	20.7	1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앞서의 분석내용을 <표 3-16>과 같이 업종 면에서 살펴보면, 경제활동 등록부로 보았을 때와는 달리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의 자영업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은 10%대만이 자영업을 경험한 반면, 농림어업 19.3%, 도소매업 14.4%, 숙박음식업 15.7%, 협회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이 약 18% 등이었다.

<표 3-16> 2007년 임금근로자 근무 업종별 2016년까지의 자영업 경험 비중

(단위:%)

2007년 임금근로자의 취업 업종	자영업 경험 비중
농림어업	19.3
제조업	10.6
건설업	13.2
도소매업	14.4
숙박음식업	15.7
운수통신업	13.7
금융보험업	9.2
부동산임대업	11.4
정보처리연구전문과학기술	12.9
교육	12.1
보건사회복지	8.6
협회수리기타개인서비스	18.2
기타	8.5

주: 기타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영화방송오락문화, 하수 청소가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제4절 자영업자의 소득-임금근로자와의 비교 분석

다음으로 이전 직장 지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표 3-17>에서 현재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부터 보면, 이번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고용주의 이번 일자리 평균 소득은 509만 원, 상용직이었을 경우 550만 원, 이전에도 고용주였을 경우 519만 원 등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많은) 이번이 첫 직장, 전직 상용직, 전직 고용주는 비교적 높은 소득을, 전직 임시직·일용직·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 고용주의 평균 소득은 505만 원, 중위값은 400만 원이었다. 이번 일자리의 평균 지속기간은 대부분 8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났다.

<표 3-17> 현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이전 직장 지위별 현재 일자리 소득, 근속기간 : 현재 일자리는 2016년 기준

이전 직장 지위	이번이 첫 직장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번 일자리 평균 소득(만 원)	509	550	389	316	519	366
이전 직장 평균근속기간(년)	-	5.3	3.2	2.5	5.0	5.9
이전 직장과의 이번 직장 소요기간(년)	-	0.4	1.4	0.8	0.4	0.1
이번 직장 근속기간(년)	18	12	9	10	9	13
이번 직장 중위 소득(만 원)	375	400	300	300	400	350
이전 직장 중위 근속기간(년)	-	2.9	1.6	1.6	2.4	3.5
이전 직장과의 이번 직장 사이 중위기간(년)	-	0.1	0.0	0.1	0.1	0.0
이번 직장 중위 근속기간(년)	16	9	7	12	8	13
이번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인지(평균)	1	4	5	5	4	4
평균 종업원 수(명)	4.4	5.9	2.6	2.3	2.9	2.2
중위 종업원 수(명)	2	3	2	2	2	1

주: 기간은 년, 소득은 만 원, 종업원 수는 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18> 현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이전 직장 지위별 현재 일자리 소득, 근속기간 : 현재 일자리는 2016년 기준

이전 직장 지위	이번이 첫 직장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번 직장 평균 소득	223	279	202	194	302	229
이전 직장 평균근속기간	-	5.8	1.9	4.7	6.3	2.8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 소 요기간	-	0.6	1.3	0.3	0.9	2.4
이번 직장 근속기간	21	11	8	15	11	11
이번 직장 중위 소득	150	200	200	150	250	200
이전 직장 중위 근속기간	-	3.7	1.4	2.9	3.9	1.7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 사 이 중위기간	-	0.1	0.3	0.1	0.1	0.5
이번 직장 중위 근속기간	18	9	6	13	10	8
이번 직장이 몇 번째 직장 인지(평균)	1	4	5	5	5	5

주: 기간은 년, 소득은 만 원, 종업원 수는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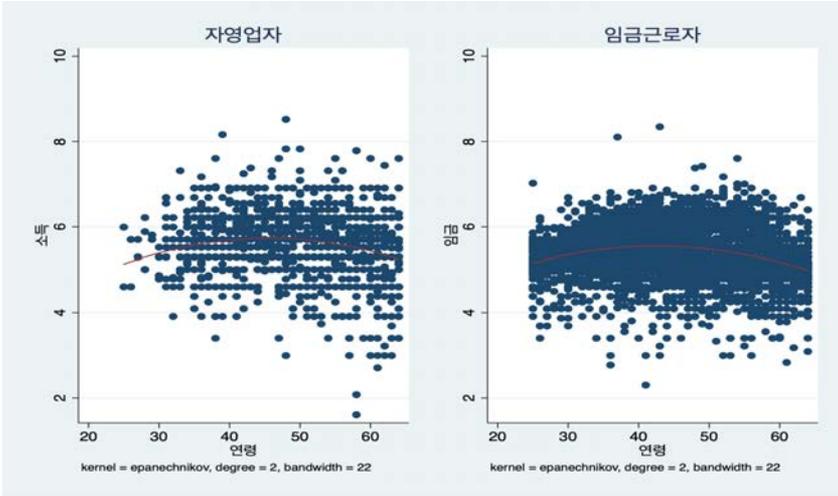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17>에서는 대부분 이번 직장이 평균 4~5회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종업원 수와 중위 종업원 수로 보면 대체로 5인 미만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 3-18>에서처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평균소득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이 첫 직장이라는 자영업자는 223만 원, 전직 상용직은 279만 원, 전직 고용주는 302만 원 등이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41만 원, 중위값은 200만 원이었다. 재직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번이 대체로 4~5회째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단년도 자료로 분석하면 임금과 소득의 관계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설명변수로 연령만 사용한 국지적다항회귀모형(local polynomial regression) 추정결과로 보면 40대 초중반까지 소득이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하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 3-2, 표 3-19 참조).

[그림 3-2]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관계(local polinomial regression)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표 3-19> 연령과 자영업 여부, 소득 관계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1) 선형회귀: 19차 개인조사자료	(4) 패널고정효과: 17~19차 개인자료
연령	0.122*** (0.00381)	0.101*** (0.0139)
연령 제곱	-0.00143*** (4.17e-05)	-0.000660*** (0.000162)
자영업 여부(기준: 임금근로)	-0.00139 (0.255)	-0.748 (0.683)
자영업 여부×연령	0.00587 (0.00976)	0.0434 (0.0313)
자영업 여부×연령 제곱	-5.00e-05 (9.22e-05)	-0.000579 (0.000355)
여성(기준: 남성)	-0.465*** (0.0161)	
자영업 여부×여성	-0.0542 (0.0364)	
상수항	3.135*** (0.0834)	2.278*** (0.296)
관측치수	7,242	19,158
R-squared	0.320	0.031
패널 개인 수		7,821

주: *** p<0.01, ** p<0.05, * p<0.1, 괄호는 표준오차. 연도 고정효과 통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19차년도(2016년)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와 17~19차년 개인조사자료(2014~2016년 자료)를 합쳐 패널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자영업 부문과 임금 근로 부문의 임금-소득 관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업 일자리가 임금근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 근로 일자리와 유사하게 성공스토리와 그렇지 않은 스토리가 뒤섞인 일자리의 한 유형이어서 임금근로 일자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연령-소득관계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3-20〉 연령과 전 직장 종사지위 여부별 자영업 여부, 소득 관계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표준오차	P>t
연령	0.100	0.008	0.000
연령 제곱	-0.001	0.000	0.000
전 직장 종사상 지위			
첫 일자리가 현재 자영업자리	0.183	1.220	0.881
상용직	-0.351	0.650	0.589
임시직	-4.597	1.403	0.001
일용직	-3.276	1.668	0.049
전직도 자영업	3.428	1.666	0.040
무급가족	-2.609	2.246	0.245
전 직장 종사상 지위×연령			
첫 일자리가 현재 자영업자리×연령	-0.003	0.057	0.961
상용직×연령	0.025	0.029	0.389
임시직×연령	0.211	0.061	0.001
일용직×연령	0.153	0.073	0.035
전직도 자영업×연령	-0.142	0.068	0.038
무급가족×연령	0.100	0.103	0.330
전 직장 종사상 지위×연령 제곱			
첫 일자리가 현재 자영업자리×연령 제곱	0.000	0.001	0.927
상용직×연령 제곱	0.000	0.000	0.241
임시직×연령 제곱	-0.002	0.001	0.000
일용직×연령 제곱	-0.002	0.001	0.030
전직도 자영업×연령 제곱	0.001	0.001	0.045
무급가족×연령 제곱	-0.001	0.001	0.411
상수항	2.407	0.179	0.000

주: R-Squared=0.05, 표본 수 24,728명, id별 8,023명. 17~19차년도 자료(2014~2016년)를 합쳐 추정. id로 클러스터 로버스트 표준오차 추정. 연도 고정효과 통제.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분석.

전 직장 종사상 지위를 모두 설명변수로 통제해보면, 특히 첫 일자리가 자영업 일자리였다는 사람과 전직 상용직인 사람들이 특히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제5절 소 결

지금까지 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과 소득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 장의 분석을 통해 자영업 진입은 주로 임금근로 경력을 경유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자영업 일자리가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대거 창업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니며 주력 경제활동연령층에서 진입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특성을 가진다는 점,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중장년층 중심이라면 나타나기 힘든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연령-소득 곡선을 보인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재 자영업자는 상당한 정도의 근속기간을 보이며(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두 배 이상), 고용주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월소득을 올리고 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번이 첫 일자리인 (아마도 물려받은) 고용주, 전직 상용직인 고용주, 전직 고용주인 고용주처럼 투자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의 소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에 대해 밀려난 일자리, 보호의 대상이거나 이미 포화상태라 구조조정의 대상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의 모습은 임금근로 시장과 유사하게 성공스토리와 그렇지 않은 스토리가 공존하는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 4 장

자영업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영향

제1절 서론

자영업의 5년 생존률이 3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신규 자영업자들은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임금노동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 소득원 필요 때문에 자영업은 쉽사리 줄어들고 있지 않다. 임금노동시장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자영업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가 많다’와 ‘많은 자영업자는 어려운 것 같다’는 정도이다. 자영업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된 적이 별로 없다.¹⁾

본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프랜차이즈와 온라인거래의 영향도 살펴보게 된다. 아울러 최근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자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구·

1)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상봉(2016), 오상봉(근간)에 기술적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악화의 이유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가구 구조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²⁾.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성향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자영업의 매출기반에 심각한 위협임에 틀림없고 전반적인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본 보고서는 자영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결정하는 외부환경의 변화보다는 사업체 내부적인 변수나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제2절은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제5절에서는 앞의 글을 정리한다.

제2절 기존연구

자영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성태 외(2014)는 2010년 경제총조사를 이용하여 음식점업에 대해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영업이익의 결정요인 분석에는 매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기여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여부변수를 포함시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비가맹점에 비해 높고 영업이익은 낮음을 보인 것이다. 김성태 외(2014)의 연구는 경영지표 중 수준(level)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점

2)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화이고 가구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1인 가구의 증가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의 주체인 가구의 소비 수준과 소비 행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일상에서 제공하는 자영업의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 구조의 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들인 것이다. 이진면 외(2014, pp.23~24)는 지금까지 가구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65세 이상 가구의 증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비가맹점과 다른 경영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일정 범위 내의 동일 업종 사업체 수를 시장경쟁도변수로 추가하여 경쟁도가 높을수록 매출은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김성태 외(2014)의 연구결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이익률은 비가맹점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전용필 외(2018)는 201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외식업체에 대해서 좌석당 영업이익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나 사업기간은 좌석당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들은 분위회귀분석도 시행하였는데 중위분위 이상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가 좌석당 영업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모든 분위에서 사업기간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광역시에 소재하는지의 여부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 및 가구 구조가 자영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 또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연구는 다수 발표되었다³⁾. 가구 소비 규모나 행태의 차이는 간접적으로 자영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손희경(2017)은 2005, 2010,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증가 및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였다. 고가영(2014)도 손희경(2017)과 비슷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1인 가구 소비 행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높은 주거비 지출, 가공식품의 선호 등, 젊은 1인 가구의 오락·문화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의 증가 등 10가지의 1인 가구 소비 특징을 지적하였다. 이계임 외(2015)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식품 소비의 특성을 비교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식품 관련 산업에 미

3)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한국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이진면 외(2014)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노형식·임진(2014)는 은행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선영(2013)과 같은 연구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정민·이용호(2013)은 산업연구원의 민간소비 지출 전망치와 통계청의 가구원 수별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이 2020년에는 전체 민간소비의 15.9%, 2030년에는 19.6%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황수경(2014)은 가구 구조의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신가구의 증가, 유배우 가구의 감소, 6세 미만 자녀 가구의 감소와 같은 가구 구성의 변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의료비, 교육훈련비, 가사서비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주거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보였다.

최은영(2017)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고령가구의 소비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고령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가구 소비보다는 가구자산 및 가구소득이 결정적인 요인임을 보였다. 김동구·박선영(2013)은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식음료비, 주거 및 수도광열비, 보건비의 지출이 높으며, 2035년에는 의료 관련 서비스 및 장비, 생활 필수재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제3절 자료 및 방법론

1. 분석방법

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해당 산업과 지역의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주변의 경쟁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쟁력이 생기기도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체가 도태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길이가 길수록 영업이익률은 높을 것이다. 자영업에서는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인건비가 영업이익에 포함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업주와 가족종사자 수는 지표상으로 나오는 영업 이익을 높이게 된다. 김성태 외(201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또한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온라인거래는 보다 쉽게 판매 채널을 확보하여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수수료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자영업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추정한다.

$$y_i = \alpha + X_i\gamma + d_j\delta + d_c\theta + \epsilon_i \quad (4-1)$$

여기서 d_j 는 소분류 업종 더미, d_c 는 시군구 더미이며, X_i 에는 경쟁도, 사업기간, 종사자 수, 사업주와 가족종사자 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온라인거래 여부 등이 포함된다. 경쟁도는

$$\frac{n(i_{jw})}{n(p_w)}$$

와 같이 사업체 i 가 속한 읍면동 w 에서 동일한 업종(소분류) j 를 영위하는 사업체 수를 i 가 속한 읍면동 w 의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사업기간과 종사자 수는 기간이 길어지고 종사자 수가 많아지면서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2차 함수 형태로 포함시켰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수요층 및 자영업의 영업형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시군구 더미 이외에 시도별 읍, 면, 동 구분에 따른 더미 변수를 추가하였다.

나.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지역별 인구·가구 구조의 차이가 해당 지역의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은 거주지와 소비자가 상당히 다를 경우 실제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즉, 실제로 특정 가구형태의 증가는 특정 업종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거주지와 소비지가 다른 경우 이러한 영향이 추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하기 용이한 곳에 자영업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도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체 집중 현상의 효과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의 인구·가구 구조가 자영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인구·가구 구조가 자영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인 가구는 소득이 낮지만 소비성향이 매우 높다. 따라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해당 지역의 자영업에 도움이 될지의 여부는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오락·문화 서비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는 간편식의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편의점에는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나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소득이 낮아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의 자영업의 경영성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고등 학생을 둔 가구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다른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업의 경영성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은 거주지역과 소비지역의 불일치, 자영업 집중 등의 영향으로 실증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인구·가구 구조가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식을 추정한다.

$$y_i = \alpha + P_w\beta + X_i\gamma + d_j\delta + d_c\theta + \epsilon_i \quad (4-2)$$

P_w 는 w 읍면동의 인구가구 구조 변수들이다. 여기에는 10세 연령별 가구주의 가구 비중, 특정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 가구원 규모별 비중, 여성 가구주의 비중, 가구 소득의 중위값 등이 포함된다. 연령별 비중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이면 모두 70세 연령대로 보고, 규모별 비중의 경우에는 6인 이상 가구는 모두 6인 가구로 본다. 고려하고 있는 특정 연령대는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18세, 70세 이상이다.

2. 자료

사업체의 경영 관련 정보는 2015 경제총조사의 원자료에서 계산하였으며, 지역별 인구 및 가구 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집계자료와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수가 많지 않은 농·임·어업, 광업, 전기·가스, 수도·하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은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의 사업기간별 비중(표 4-1 참조)을 보면 5년 미만인 약 50%이다.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데, 숙박·음식점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의 경우 1년 미만 비중이 20%를 넘는다. 종사자 수별 비중(표 4-2 참조)을 보면, 분석대상 전체로는 약 60%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고, 약 30%가 고용원은 있지만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자영업이다. 업종별로 편차가 상당한데,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의 경우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40% 미만이다. <표 4-3>에서 보듯이 자영업의 사업체에 언제나 사업주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사업체에서 일하지 않는 자영업체는 7.4%이

<표 4-1> 사업기간별 비중

(단위:%)

	<1년	<3년	<5년	<10년	<20년	≥20년
전 체	15.3	20.7	13.0	19.5	21.7	9.8
제조	10.0	15.8	11.5	20.1	28.8	14.0
도매·소매	14.8	20.4	12.6	19.0	21.9	11.4
숙박·음식점	22.8	26.9	14.7	17.4	14.5	3.8
부동산·임대	16.7	21.9	14.0	23.8	17.5	6.2
교육	17.4	25.4	17.2	23.5	13.5	3.0
보건·복지	9.3	16.9	14.5	22.3	26.4	10.7
예술·스포츠여가	22.3	26.8	16.6	19.6	13.3	1.5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12.2	18.0	12.7	20.4	25.1	11.6

며, 무급가족종사자와 2명 이상 일하는 사업체는 22.6%이다. 사업주와 가족이 일하는 수도 업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다. 일하는 사업주와 가족의 수가 영업이익률 분석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인건비가 아닌 영업이익으로 모두 처리되므로 일하는 사업주와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가 많아지면 이 효과는 희석되지만 종사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의 영업이익률 분석에서는 사업주와 가족의 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⁴⁾

〈표 4-2〉 종사자 수별 비중

(단위:%)

	고용원 없는 자영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		
		<5인	>10인	≥10인
전 체	58.7	29.1	10.4	1.8
제조	38.7	34.9	22.4	4.1
도매·소매	60.7	31.3	7.5	0.5
숙박·음식점	55.6	33.1	9.9	1.4
부동산·임대	61.1	32.1	6.6	0.3
교육	52.4	34.3	10.2	3.2
보건·복지	2.8	44.8	37.7	14.7
예술·스포츠여가	66.3	27.6	5.5	0.6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78.1	16.7	4.0	1.2

〈표 4-3〉 일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수별 비중

(단위:%)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 체	7.4	70.1	21.3	1.3
제조	11.8	65.4	21.5	1.3
도매·소매	9.6	65.5	24.0	1.0
숙박·음식점	1.7	57.7	37.5	3.2
부동산·임대	14.8	72.8	12.0	0.4
교육	2.3	87.9	9.4	0.4
보건·복지	0.2	96.5	3.0	0.3
예술·스포츠여가	1.5	71.6	25.8	1.1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1.4	84.8	13.5	0.4

4) 데이터 추출 기준에 따라 추출에서 제외되는 사업체가 달라져서 기술통계가 미세하게 차이날 수 있다.

〈표 4-4〉 프랜차이즈 가맹 및 온라인거래 비율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 비율	온라인거래 비율
전 체	6.1	1.3
도매·소매	5.1	3.5
숙박·음식점	16.2	0.9
부동산·임대	0.2	0.8
교육	9.7	0.3
보건·복지	0.4	-
예술·스포츠여가	3.0	0.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5.0	0.2

〈표 4-4〉를 보면 자영업의 6.1%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사실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인데, 다수의 업종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가 조사되지 않아서 계산의 편의상 0으로 처리하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율이 훨씬 높는데,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5인 이상 자영업체의 약 30%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오상봉, 근간). 온라인거래 비율은 한국의 온라인매출 증가세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기간별 영업이익률(표 4-5 참조)은 상승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종사자 수별 영업이익률(표 4-6 참조)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은 38%에 이르는 반면 규모가 커지면 이것의 1/2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실적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그의 가족의 인건비가 영업이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이다. 업종 특성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매출원가 비중이 높은 도매·소매업이나 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반면 매출원가가 크지 않는 부동산·임대와 같은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높다. 따라서 사업체의 생산방식의 차이를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

〈표 4-5〉 사업기간별 영업이익률

(단위:%)

	<1년	<3년	<5년	<10년	<20년	≥20년
전 체	30.0	28.2	26.9	28.3	30.9	35.3
제조	25.7	21.2	19.6	20.6	22.4	25.5
도매·소매	23.4	20.8	18.7	19.1	20.6	25.9
숙박·음식점	30.0	26.8	24.5	25.4	28.8	31.8
부동산·임대	40.0	42.5	42.6	43.0	41.1	39.7
교육	37.9	38.5	37.0	36.9	38.1	34.6
보건·복지	20.9	23.5	24.5	27.1	31.2	35.5
예술·스포츠여가	36.7	34.4	32.6	33.8	35.4	38.5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40.1	41.8	41.0	41.9	44.1	49.0

〈표 4-6〉 종사자 수별 영업이익률

(단위:%)

	고용원 없는 자영업	고용원 있는 자영업		
		<5인	<10인	≥10인
전 체	38.0	19.3	13.4	13.4
제조	34.3	16.7	12.2	10.6
도매·소매	27.1	12.9	7.9	8.4
숙박·음식점	34.1	21.0	13.7	12.4
부동산·임대	50.2	31.0	17.4	23.5
교육	47.4	31.0	17.6	11.6
보건·복지	38.3	31.7	25.2	18.6
예술·스포츠여가	38.8	28.0	21.1	16.7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48.6	25.5	14.5	13.1

인구·가구 변수의 평균값은 <표 4-7>과 같다.

〈표 4-7〉 인구·가구 변수의 평균값

(단위:%)

인구 변수		가구 변수	
변수명	평균값	변수명	평균값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12.8	1인 가구(70세 이상) 비중	4.6
7~12세 有 가구 비중	11.7	1인 가구(70세 미만) 비중	24.3
13~18세 有 가구 비중	14.0	2인 가구 비중	23.6
20대 가구주 가구 비중	7.3	3인 가구 비중	21.0
30대 가구주 가구 비중	18.7	4인 가구 비중	19.5
40대 가구주 가구 비중	25.2	5인 이상 가구 비중	5.2
50대 가구주 가구 비중	23.8	여성 가구주 가구 비중	29.0
60대 가구주 가구 비중	13.4		
70대 가구주 가구 비중	11.2		

주: 읍면동의 인구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값.

제4절 분석결과

1. 영업이익률 결정 요인

사업체 간 경쟁도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업종별 분석에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만 유의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진다(표 4-8 참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비가맹점에 비해 3.4% 포인트 낮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종사자 수가 많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보건업, 복지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업이익률이 하락한다. 사업주 또는 가족이 1명 더 많이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3.7%포인트 상승한다.

〈표 4-8〉 영업이익 결정요인 : 전체 및 중분류

	전 체	소매업	음식점업	교육업
경쟁도	-0.005** (0.002)	-0.006* (0.003)	0.001 (0.002)	-0.046*** (0.014)
프랜차이즈 가맹점	-0.034*** (0.001)	-0.028*** (0.001)	-0.019*** (0.001)	-0.032*** (0.002)
온라인 이용	-0.011*** (0.001)	-0.021*** (0.002)	-0.007* (0.003)	-0.065*** (0.009)
사업기간	-0.000*** (0.000)	-0.000*** (0.000)	-0.005*** (0.000)	0.001*** (0.000)
사업기간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0.037*** (0.000)	-0.046*** (0.001)	-0.042*** (0.001)	-0.061*** (0.001)
종사자 수 제공	0.001*** (0.000)	0.002*** (0.000)	0.001*** (0.000)	0.002*** (0.000)
고용주/가족 수	0.037*** (0.000)	0.032*** (0.001)	0.018*** (0.000)	0.052*** (0.002)
업종(소분류) 더미	○	○	○	○
시군구 더미	○	○	○	○
R ²	0.437	0.190	0.225	0.311
관측치 수	2918450	571324	570798	124849

〈표 4-8〉의 계속

	보건업	복지업	스포츠오락	기타 개인
경쟁도	-0.007* (0.003)	-0.024* (0.010)	0.001 (0.005)	-0.023* (0.009)
프랜차이즈 가맹점		0.011 (0.006)	-0.009** (0.004)	-0.034*** (0.003)
온라인 이용			-0.018 (0.015)	-0.055*** (0.012)
사업기간	0.007*** (0.000)	0.003*** (0.000)	-0.005*** (0.000)	0.005*** (0.000)
사업기간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0.002*** (0.000)	-0.012*** (0.000)	-0.046*** (0.002)	-0.067*** (0.001)
종사자 수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2*** (0.000)
고용주/가족 수	0.019*** (0.002)	0.039*** (0.004)	0.039*** (0.001)	0.046*** (0.002)
업종(소분류) 더미	○	○	○	○
시군구 더미	○	○	○	○
R ²	0.215	0.163	0.133	0.276
관측치 수	55125	35618	73691	174787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표 4-9〉에서 본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별 영향 또한 앞의 중분류 추정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쟁도는 일반 교습학원뿐만 아니라 중분류 분석에서 유의도가 낮았던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이용 및 미용업에도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나 온라인거래 여부가 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인화된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기 때문에 계수의 유의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사업기간과 종사자 수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중분류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고용주와 가족종사자의 수는 매우 유의하게 영업이익률을 높아 보이게 만들고 있다.

〈표 4-9〉 영업이익률 결정요인 : 세·세세 분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비알콜 음료점
	전체	체인화 편의점		
경쟁도	0.000 (0.003)	-0.002 (0.004)	0.005 (0.007)	-0.002 (0.004)
프랜차이즈 가맹점	-0.046*** (0.002)	-0.006* (0.003)	-0.034*** (0.003)	-0.026*** (0.002)
온라인 이용	-0.031*** (0.008)	0.038 (0.023)	0.005 (0.004)	-0.035** (0.011)
사업기간	-0.001*** (0.000)	-0.018*** (0.001)	-0.001*** (0.000)	-0.001*** (0.000)
사업기간 제공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0.033*** (0.001)	-0.017*** (0.003)	-0.070*** (0.002)	-0.052*** (0.002)
종사자 수 제공	0.001*** (0.000)	0.001*** (0.000)	0.004*** (0.000)	0.002*** (0.000)
고용주/가족 수	-0.001 (0.001)	0.012*** (0.001)	0.033*** (0.002)	0.054*** (0.002)
시군구 더미	○	○	○	○
R ²	0.209	0.191	0.139	0.286
관측치 수	89252	26611	88247	51455

	일반 음식점		기타 음식점		
	전체	한식	전체	치킨	분식·김밥
경쟁도	0.002 (0.002)	0.004* (0.002)	0.002 (0.003)	-0.002 (0.006)	-0.004 (0.005)
프랜차이즈 가맹점	-0.014*** (0.001)	-0.014*** (0.001)	-0.058*** (0.001)	-0.033*** (0.002)	-0.039*** (0.002)
온라인 이용	-0.004 (0.006)	-0.006 (0.007)	-0.014*** (0.003)	-0.021*** (0.005)	0.002 (0.015)
사업기간	-0.005*** (0.000)	-0.005*** (0.000)	-0.003*** (0.001)	-0.006*** (0.002)	0.000 (0.000)
사업기간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0.039*** (0.001)	-0.041*** (0.001)	-0.040*** (0.001)	-0.039*** (0.004)	-0.078*** (0.003)
종사자 수 제공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2*** (0.000)	0.004*** (0.000)
고용주/가족 수	0.014*** (0.001)	0.013*** (0.001)	0.023*** (0.001)	0.018*** (0.002)	0.044*** (0.002)
시군구 더미	○	○	○	○	○
R ²	0.209	0.208	0.267	0.178	0.301
관측치 수	306844	269302	99183	29040	38954

〈표 4-9〉의 계속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 레이션 교육기관	보육시설 운영업
경쟁도	-0.044*** (0.012)	-0.000 (0.012)	-0.010 (0.009)
프랜차이즈 가맹점	-0.027*** (0.002)	-0.070*** (0.010)	0.006 (0.007)
온라인 이용	-0.056** (0.017)	-0.049 (0.026)	
사업기간	-0.004*** (0.000)	0.003*** (0.000)	0.002*** (0.000)
사업기간 제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0.067*** (0.001)	-0.074*** (0.005)	-0.018*** (0.001)
종사자 수 제공	0.002*** (0.000)	0.003*** (0.001)	0.000*** (0.000)
고용주/가족 수	0.043*** (0.003)	0.074*** (0.003)	0.032*** (0.004)
시군구 더미	○	○	○
R ²	0.339	0.217	0.198
관측치 수	54723	21302	3087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이용 및 미용업	
			전체	두발미용업
경쟁도	-0.001 (0.006)	0.003 (0.008)	-0.027*** (0.007)	-0.031*** (0.007)
프랜차이즈 가맹점	-0.023* (0.010)	-0.009* (0.004)	0.000 (0.004)	0.004 (0.004)
온라인 이용	-0.084** (0.029)	-0.009 (0.033)	-0.055*** (0.015)	-0.049* (0.023)
사업기간	-0.001 (0.001)	-0.012*** (0.001)	0.005*** (0.000)	0.004*** (0.000)
사업기간 제공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종사자 수	-0.053*** (0.002)	-0.049*** (0.003)	-0.088*** (0.004)	-0.090*** (0.005)
종사자 수 제공	0.002*** (0.000)	0.002*** (0.000)	0.003*** (0.000)	0.003*** (0.001)
고용주/가족 수	0.056*** (0.003)	0.032*** (0.002)	0.071*** (0.003)	0.057*** (0.004)
시군구 더미	○	○	○	○
R ²	0.215	0.124	0.273	0.268
관측치 수	24857	41560	118742	80819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2.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은 자영업 사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구·가구 구조가 그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는 앞 소절의 영업이익률 추정식에 읍면동별 인구·가구 구조 변수가 추가되었다.

인구·가구 구조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앞의 분석에서 이용된 다른 변수의 추정 계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업종별 경쟁도의 경우 많은 업종의 유의도가 높아졌다. 소매업과 보건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바뀌었다.

가구 구조의 지역별 차이로는 가구원 수별 비중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여성가구의 비중과 중위 가구소득을 추가하였다. 인구구조의 지역별 차이로는 10세 연령별 가구주 비중에 6세 이하, 7~12세, 13~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을 추가하였다.⁵⁾ 40대 가구주의 비중, 4인 가구의 비중을 기준변수로 제외하였다. 즉, 가구주 비중의 영향은 40대 가구주 비중에 비해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1>을 보면, 자영업 전체로 봐서 13~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나 60세 가구주 가구는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13~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나 60세 가구주 가구의 영향은 일부 업종에서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중위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이다. 소비 수준이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지역에 소비가 활발하고 따라서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업종별 결과로부터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와 소비지의 차이 때문일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지만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중분류 업종별로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소매

5) 가구주 비중을 인구구조 변수로 이용한 것은 소비의 단위가 가구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차이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것은 가구의 인구구조를 거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의 경우 60대 가구주 비중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중위 가구소득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3~18세가 있는 가구의 비중과 60대 가구주 비중, 여성가구주 비중이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가구에서는 여성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외식을 많이 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중위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다. 이는 학령인구가 있는 가구가 많을수록 자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이다.

보건업의 경우 13~18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복지서비스업의 경우 2인 가구 비중이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2인 가구의 경우 유아나 고령자가 없어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은 6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6세 이하 가구원은 30대 가구주의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는데 30대 가구주의 비중은 10% 유의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중위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없다.

<표 4-11>을 통해 소매업 중에서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과 식료품 소매업을 살펴보자. 두 업종 모두에 대해서 5인 이상 가구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구원이 많은 경우 음식료의 구매를 대형마트 등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 거주지와 소비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에 속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없다.

음식점업의 경우 취학전 아동이나 중고등학생을 둔 가구나 6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는데, 세부 업종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났다. 취학 전 아동을 둔 가구의 비중이 높으면 일반 음식점과 기타 음식점 모두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그러나 치킨이나 분식·김밥집의 영업이익에는 유의하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않았다. 중고등학

생을 둔 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이 높았으며 50대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치킨점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된 비알콜주점업의 경우에 60대 가구주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4-10〉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전체 및 중분류

	전체	소매업	음식점업	교육업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0.068 (0.050)	0.131* (0.062)	0.208*** (0.049)	-0.105 (0.090)
7~12세 有 가구 비중	-0.059 (0.057)	0.008 (0.072)	-0.024 (0.057)	-0.064 (0.106)
13~18세 有 가구 비중	0.143** (0.054)	0.107 (0.067)	0.192*** (0.052)	0.029 (0.089)
20대 가구주 비중	0.028 (0.037)	0.032 (0.043)	0.051 (0.035)	-0.008 (0.068)
30대 가구주 비중	-0.002 (0.049)	-0.061 (0.058)	0.013 (0.047)	-0.025 (0.092)
50대 가구주 비중	0.029 (0.052)	0.024 (0.065)	0.122* (0.054)	-0.039 (0.103)
60대 가구주 비중	0.224*** (0.049)	0.178** (0.059)	0.317*** (0.045)	-0.012 (0.089)
70대 가구주 비중	-0.031 (0.060)	0.024 (0.079)	0.128* (0.063)	-0.112 (0.132)
1인 가구 비중 (70세 이상)	0.200* (0.098)	0.124 (0.118)	0.034 (0.095)	0.305 (0.194)
1인 가구 비중 (70세 미만)	0.016 (0.054)	0.037 (0.067)	0.093 (0.056)	0.053 (0.105)
2인 가구 비중	-0.059 (0.056)	0.012 (0.066)	-0.012 (0.057)	0.138 (0.105)
3인 가구 비중	0.084 (0.087)	0.015 (0.106)	0.034 (0.082)	0.404* (0.166)
5인 이상 가구 비중	-0.166* (0.076)	-0.222* (0.095)	-0.170* (0.073)	0.348* (0.148)
여성 가구주 비중	0.050* (0.021)	0.028 (0.024)	0.065** (0.020)	-0.021 (0.041)
중위 가구소득 로그값	-0.006*** (0.002)	-0.003 (0.002)	-0.005** (0.001)	-0.019*** (0.004)
사업체 관련 변수	○	○	○	○
업종(소분류) 더미	○	○	○	○
시군구 더미	○	○	○	○
R ²	0.438	0.192	0.229	0.313
관측치 수	2918450	571324	570798	124849

〈표 4-10〉의 계속

	보건	복지	스포츠오락	기타개인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0.094* (0.044)	-0.135 (0.116)	0.280** (0.096)	0.087 (0.093)
7~12세 有 가구 비중	-0.102* (0.051)	-0.008 (0.134)	-0.246* (0.112)	-0.261* (0.109)
13~18세 有 가구 비중	0.127** (0.048)	0.124 (0.136)	0.108 (0.105)	0.106 (0.100)
20대 가구주 비중	-0.026 (0.033)	0.025 (0.092)	0.025 (0.070)	0.017 (0.069)
30대 가구주 비중	-0.062 (0.042)	0.307* (0.126)	-0.219* (0.092)	-0.089 (0.092)
50대 가구주 비중	-0.037 (0.049)	0.139 (0.138)	-0.030 (0.107)	-0.047 (0.103)
60대 가구주 비중	0.055 (0.041)	0.027 (0.130)	0.130 (0.091)	0.228* (0.091)
70대 가구주 비중	-0.055 (0.061)	0.259 (0.172)	-0.089 (0.134)	-0.303* (0.123)
1인 가구 비중 (70세 이상)	0.033 (0.084)	-0.353 (0.237)	0.058 (0.208)	0.337 (0.189)
1인 가구 비중 (70세 미만)	-0.034 (0.051)	-0.173 (0.133)	0.000 (0.112)	-0.104 (0.104)
2인 가구 비중	-0.015 (0.048)	-0.382** (0.138)	0.031 (0.117)	0.049 (0.112)
3인 가구 비중	-0.122 (0.077)	-0.215 (0.211)	-0.074 (0.177)	-0.125 (0.161)
5인 이상 가구 비중	-0.124 (0.071)	-0.392* (0.187)	-0.029 (0.157)	0.025 (0.152)
여성 가구주 비중	-0.009 (0.019)	0.060 (0.056)	0.056 (0.038)	-0.025 (0.038)
중위 가구소득 로그값	-0.000 (0.001)	-0.001 (0.004)	-0.009** (0.003)	-0.008*** (0.003)
사업체 관련 변수	○	○	○	○
업종(소분류) 더미	○	○	○	○
시군구 더미	○	○	○	○
R ²	0.217	0.169	0.137	0.280
관측치 수	55125	35618	73691	174787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교습학원이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는 중위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유의한 변수가 없다. 복지서비스업에 속하는 보육시설 운영업에도 유의한 변수가 없다. 다만 30대 가구주 비중은 10%대 수준에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썼고 2인 가구의 비중은

10%대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 속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초등학교를 둔 가구의 비중이나 30대 가구주의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미용업과 관련해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가 없다.

〈표 4-11〉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세·세세 분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비알콜 주점업
	전체	편의점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0.129 (0.070)	0.109 (0.065)	0.066 (0.123)	-0.067 (0.097)
7~12세 有 가구 비중	0.100 (0.088)	-0.045 (0.078)	0.162 (0.132)	0.069 (0.107)
13~18세 有 가구 비중	0.136 (0.076)	0.028 (0.075)	-0.078 (0.136)	0.167 (0.104)
20대 가구주 비중	0.089 (0.051)	0.040 (0.049)	0.022 (0.089)	0.110 (0.070)
30대 가구주 비중	0.097 (0.065)	-0.012 (0.062)	-0.133 (0.117)	0.238* (0.095)
50대 가구주 비중	0.139 (0.081)	0.061 (0.074)	0.040 (0.129)	0.220* (0.105)
60대 가구주 비중	0.220** (0.068)	0.078 (0.068)	0.169 (0.123)	0.355*** (0.088)
70대 가구주 비중	0.377*** (0.093)	0.113 (0.096)	0.072 (0.153)	0.227 (0.133)
1인 가구 비중 (70세 이상)	-0.268 (0.150)	-0.276 (0.151)	0.055 (0.212)	-0.059 (0.209)
1인 가구 비중 (70세 미만)	0.047 (0.084)	-0.092 (0.081)	0.026 (0.120)	0.044 (0.112)
2인 가구 비중	0.021 (0.086)	-0.104 (0.081)	-0.074 (0.118)	-0.064 (0.123)
3인 가구 비중	-0.129 (0.133)	-0.183 (0.126)	0.122 (0.200)	0.137 (0.171)
5인 이상 가구 비중	-0.309** (0.113)	-0.227 (0.118)	-0.612** (0.193)	-0.229 (0.163)
여성 가구주 비중	-0.016 (0.031)	0.051 (0.026)	0.057 (0.049)	-0.005 (0.041)
중위 가구소득 로그값	-0.003 (0.002)	-0.002 (0.002)	-0.001 (0.003)	-0.006* (0.003)
사업체 관련 변수	○	○	○	○
시군구 더미	○	○	○	○
R ²	0.213	0.192	0.145	0.289
관측치 수	89252	26611	88247	51455

〈표 4-11〉의 계속

	일반음식점		기타 음식점		
	전체	한식	전체	치킨	분식김밥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0.224*** (0.051)	0.236*** (0.053)	0.175** (0.067)	0.098 (0.090)	0.207* (0.099)
7~12세 有 가구 비중	-0.060 (0.063)	-0.063 (0.065)	-0.041 (0.073)	0.078 (0.106)	-0.037 (0.115)
13~18세 有 가구 비중	0.188*** (0.056)	0.208*** (0.059)	0.079 (0.067)	0.010 (0.097)	0.091 (0.106)
20대 가구주 비중	0.032 (0.038)	0.039 (0.040)	-0.018 (0.048)	0.019 (0.066)	0.034 (0.072)
30대 가구주 비중	-0.023 (0.050)	-0.013 (0.052)	-0.031 (0.064)	0.101 (0.086)	-0.053 (0.093)
50대 가구주 비중	0.072 (0.061)	0.097 (0.062)	0.111 (0.073)	0.313** (0.103)	0.127 (0.108)
60대 가구주 비중	0.287*** (0.048)	0.294*** (0.050)	0.185** (0.064)	0.016 (0.087)	0.260** (0.095)
70대 가구주 비중	0.117 (0.066)	0.145* (0.067)	0.082 (0.098)	0.208 (0.127)	-0.003 (0.140)
1인 가구 비중 (70세 이상)	0.035 (0.097)	0.014 (0.099)	-0.091 (0.146)	-0.050 (0.191)	0.115 (0.211)
1인 가구 비중 (70세 미만)	0.109 (0.059)	0.115 (0.062)	-0.009 (0.075)	0.007 (0.111)	0.065 (0.114)
2인 가구 비중	0.010 (0.063)	-0.002 (0.065)	-0.053 (0.076)	-0.003 (0.108)	0.024 (0.112)
3인 가구 비중	0.061 (0.085)	0.058 (0.089)	-0.222* (0.112)	-0.232 (0.170)	-0.041 (0.175)
5인 이상 가구 비중	-0.151* (0.076)	-0.177* (0.079)	-0.159 (0.108)	0.122 (0.155)	-0.048 (0.161)
여성 가구주 비중	0.048* (0.021)	0.052* (0.022)	0.051 (0.027)	0.031 (0.038)	0.070 (0.043)
중위 가구소득 로그값	-0.004** (0.001)	-0.004** (0.002)	-0.005* (0.002)	-0.011** (0.003)	-0.000 (0.003)
사업체 관련 변수	○	○	○	○	○
시군구 더미	○	○	○	○	○
R ²	0.214	0.213	0.270	0.184	0.304
관측치 수	306844	269302	99183	29040	38954

〈표 4-11〉의 계속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레크리 에이션 교육기관	보육시설 운영업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0.288* (0.116)	-0.134 (0.161)	-0.072 (0.123)
7~12세 有 가구 비중	0.151 (0.131)	-0.235 (0.191)	-0.037 (0.144)
13~18세 有 가구 비중	-0.101 (0.110)	-0.096 (0.174)	0.189 (0.143)
20대 가구주 비중	0.014 (0.089)	-0.112 (0.123)	-0.024 (0.096)
30대 가구주 비중	0.071 (0.113)	-0.188 (0.158)	0.296* (0.133)
50대 가구주 비중	0.044 (0.128)	-0.275 (0.181)	0.141 (0.145)
60대 가구주 비중	0.014 (0.113)	0.156 (0.160)	0.118 (0.141)
70대 가구주 비중	-0.028 (0.170)	-0.400 (0.242)	0.304 (0.189)
1인 가구 비중 (70세 이상)	0.332 (0.253)	0.359 (0.360)	-0.348 (0.263)
1인 가구 비중 (70세 미만)	0.106 (0.137)	-0.038 (0.188)	-0.052 (0.142)
2인 가구 비중	0.142 (0.135)	-0.114 (0.188)	-0.344* (0.151)
3인 가구 비중	0.472* (0.219)	0.444 (0.298)	-0.155 (0.226)
5인 이상 가구 비중	0.220 (0.199)	0.129 (0.271)	-0.286 (0.202)
여성 가구주 비중	-0.014 (0.054)	0.034 (0.073)	0.048 (0.061)
중위 가구소득 로그값	-0.015** (0.006)	-0.023*** (0.006)	-0.003 (0.004)
사업체 관련 변수	○	○	○
시군구 더미	○	○	○
R ²	0.342	0.222	0.200
관측치 수	54723	21302	30876

〈표 4-11〉의 계속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이용 및 미용업	
			전체	두발미용
6세 이하 有 가구 비중	0.114 (0.158)	0.186 (0.105)	0.088 (0.097)	0.065 (0.105)
7~12세 有 가구 비중	-0.518** (0.179)	-0.052 (0.126)	-0.245* (0.115)	-0.316* (0.125)
13~18세 有 가구 비중	-0.111 (0.166)	0.062 (0.120)	0.107 (0.107)	0.109 (0.117)
20대 가구주 비중	-0.248* (0.112)	0.138 (0.075)	0.016 (0.074)	-0.029 (0.079)
30대 가구주 비중	-0.472** (0.144)	-0.103 (0.099)	-0.069 (0.100)	-0.105 (0.107)
50대 가구주 비중	-0.425* (0.172)	0.100 (0.116)	0.048 (0.111)	-0.013 (0.119)
60대 가구주 비중	-0.002 (0.149)	0.118 (0.100)	0.169 (0.097)	0.097 (0.106)
70대 가구주 비중	-0.398 (0.228)	-0.086 (0.151)	-0.193 (0.131)	-0.179 (0.141)
1인 가구 비중 (70세 이상)	-0.145 (0.348)	0.370 (0.224)	0.257 (0.197)	0.118 (0.211)
1인 가구 비중 (70세 미만)	-0.216 (0.182)	0.025 (0.124)	-0.040 (0.112)	-0.082 (0.120)
2인 가구 비중	-0.227 (0.182)	0.107 (0.129)	0.094 (0.117)	0.036 (0.121)
3인 가구 비중	-0.156 (0.288)	-0.035 (0.197)	-0.111 (0.169)	-0.128 (0.181)
5인 이상 가구 비중	-0.216 (0.257)	0.121 (0.172)	0.062 (0.165)	0.039 (0.175)
여성 가구주 비중	0.033 (0.062)	0.011 (0.042)	-0.056 (0.040)	-0.005 (0.043)
중위 가구소득 로그값	-0.018** (0.006)	-0.008* (0.004)	-0.007* (0.003)	-0.006* (0.003)
사업체 관련 변수	○	○	○	○
시군구 더미	○	○	○	○
R ²	0.219	0.129	0.277	0.272
관측치 수	24857	41560	118742	80819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제5절 소 결

본 보고서는 2015 경제총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집계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변수가 예측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쟁도가 낮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자영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낮았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높은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가구 구조의 차이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구조의 변화는 자영업의 경영상황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구주 비중은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구조는 자영업 경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와 60대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구구조의 영향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업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예상대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가구 구조가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의 추정에는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다소 두출되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가구 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소비지의 불일치와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해당 업종의 자영업의 집중을 적절히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 5 장

대형 소매업 사업장 입점 이후 인근 지역의 소매업 분포 변화 : 사업체 행정 DB를 이용한 탐색

제1절 서론

대형마트 진입이 지역 상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등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지속되고 있다(권태구·성낙일, 2014; 서용구·한경동, 2015; 박성재 외, 2015; Cho et al., 2015; 정희상, 2016; 정소라, 2018). 특히 대형마트 진입에 따른 지역 소매업체 수와 고용 변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실증분석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권태구·성낙일(2014)은 2000~2011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 수준 소매업 사업체 패널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여 대형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supermarket)의 신규 입점이 소규모 슈퍼마켓 및 식료품 소매업체 수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Cho et al.(2015)은 1997~2010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 수준 소매업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고, 1개의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은 200개의 소매업 일자리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용구·한경동(2015)은 2000~2012년 서울시 25개 구 수준의 사업체 패널자료를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 사업체의 출점이 소규모 소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소라(2018)은

2000~2015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 수준의 소매업 사업체 패널자료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종사자를 제외하였을 때, 총종사자 수와 상용근로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시군구 수준에서 집계된 소매업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할인마트 진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신규 대형할인마트 진입의 영향은 지리적으로 국지적인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영향권이 시군구 행정구역 범위보다 좁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 수준에서 집계된 자료에서는 신규 진입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받지 않은 지역에 입지한 소매업 사업체들이 혼재되어 있어 신규 입점의 영향이 희석될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신규 입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소매업체들뿐만 아니라, 인접 행정구역의 소매업체 분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처럼 시군구 단위의 집계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분석 단위에 기인한 측정오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매업 사업장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대형마트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매업 사업장 단위에서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사업장 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자료에서 함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제한된다. 그러나 통계청은 국내의 다양한 행정자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업체 행정 DB는 사업장의 주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 간 거리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협조로 사업체 행정 DB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 인근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탐색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협조로 사업장 간 거리 기반의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입점 이후, 인근 지역에

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 아닌 소매업 사업장의 수와 종사자 수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신규 입점의 영향이 미치는 인근 지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1,000m 기준으로 설정됨을 고려하여(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신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으로부터 1,000m 미만을 인근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사업체 행정 DB는 사업장 단위의 광대한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제 분석이 가능한 기간은 2012~2015년에 한정되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따른 시간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가능한 기간에 신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존재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를 분석대상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엄밀한 통계분석보다는 총사업장 수 및 총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보는 탐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자료의 분석대상 지역 선정과 구축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소매업 공간 분포 특성과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범위, 비교지역을 구성한 방법을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신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 소매업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 변화를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절 분석자료

1. 분석대상 지역의 선정과 분석자료의 구축

백화점 또는 대형 종합 소매업체가 입점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서의 소

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사업체 행정 DB를 사용하였다.⁶⁾ 통계청은 각 정부 부처에서 축적되는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자료 등 소매업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체 행정 DB에 대한 접근을 허가해 주었다. 사업체 행정 DB 구축은 행정자료의 입수, 자료 검토, 정리 등 일련의 작업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행정 DB는 2012~2015년 기간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제약으로 2012~2015년 기간 내에 새롭게 입점한 백화점 및 대형 종합 소매업체가 있는 지역을 탐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및 2013년에 신규 백화점 및 대형 종합 소매업체가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충청북도 청주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시와 청주시에 대한 분석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 행정 DB에서 산업중분류가 ‘소매업(자동차 제외)’이고, 산업세세분류명이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 아니며,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천안시 또는 청주시인 소매업 사업장의 2012~2015년 연도별 자료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선별된 자료에서 공간좌표에 실측치가 있거나 개업일에 실측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 중복 사업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는 자료처리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2012년 및 2013년에 천안시 및 청주시에 신규 입점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개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미만 거리에 입지한 소매업 사업장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시의 분석대상 사업장은 총 321개이고 총관측치는 697개였다. 청주시의 분석대상 사업장은 총 661개이며, 총관측치는 1,421개였다. 각 사업장은 개업과 폐업의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료는 불균형 패널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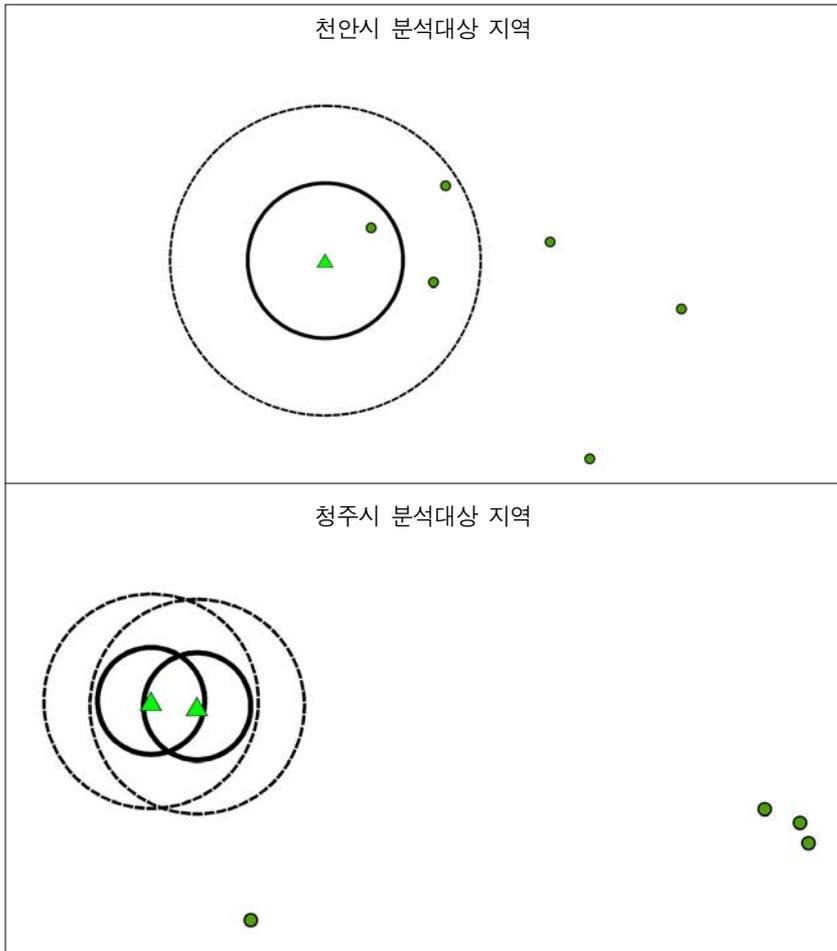
2.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분포 특성

본 연구의 천안시 및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은 각 지역에서 2012년 및

6) 통계청의 사업체 행정 DB는 통계청에서 구축하는 행정 DB이기 때문에 통계청 내 보안 처리된 컴퓨터에서만 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하였다. 자료 처리에 도움을 주신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2013년에 신규 입점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개 사업장으로부터 1,000m 미만의 지역이다. [그림 5-1]은 천안시와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 신규 및 기존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공

[그림 5-1] 천안시와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의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공간 분포



주: 삼각형은 2012년 및 2013년에 개업한 ‘백화점’ 또는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을 나타내며, 원점은 2012년 이전에 개업한 백화점 또는 대형 종합소매업 사업장을 나타냄. 실선으로 그려진 원은 2012년 및 2013년에 개업한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그려진 원은 반경 1,000m를 나타냄.

자료: 필자 정리.

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곳씩 개업하였는데, 두 사업장의 위치는 동일하다.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 그림에서 삼각형은 신규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 2곳의 위치를 나타내며, 실선으로 그려진 원은 신규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 미만, 점선으로 그려진 원은 반경 1,000m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12년에 ‘백화점’ 사업장 1곳과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 2곳이 개업하였으며,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 2곳의 위치는 동일하였다.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 그림에서 삼각형은 각각 신규 ‘백화점’과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며, 실선 및 점선으로 그려진 원은 각각 반경 500m 및 1,000m를 나타낸다.

천안시와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은 ‘백화점’과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의 구성과 개수, 개업 연도가 상이하다. 그러나 두 분석대상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 입점한 사업장 근처에 2012년 이전에 개업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존재 여부이다. 천안시의 경우, 2012년 이후 신규 입점한 대형 소매 사업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1곳, 1,000m 이내에 2곳의 기존 대형 소매 사업장이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신규 입점한 대형 소매 사업장으로부터 1,000m 이내에 기존의 대형 소매 사업장은 없었다. 이처럼 두 분석대상 지역은 기존의 대형 소매 사업장이 입지하여 국지적으로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신규 대형 소매 사업장이 입지하는 경우(천안시)와 기존의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는 지역에서 새롭게 대형 소매 사업장이 입지하는 경우(청주시)로 구분할 수 있다.

3. 비교 지역의 구성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영향은 인근지역 소매업 사업장의 분포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과 2015년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입지 이후 인근지역의 소매업 분포 변화는 대형 소매업 사업장과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

나라, 2013~2015년 기간의 소매업 전체에서 진행된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2013~2015년 기간 동안의 소매업 전체 추세를 통제된 후에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인근지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비교지역을 설정하고, 비교지역 내 소매 사업장의 분포 변화를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지역을 두 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 지역의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분석대상 지역의 신규 대형 사업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2012년 이전에 개업한 기존의 대형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미만인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지역의 여집합을 비교지역으로 설정하는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천안시의 비교지역 사업장은 총 13,775개이고, 총관측치는 33,062개였다. 청주시의 비교지역 사업장은 총 18,917개이고, 총관측치는 45,151개였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2012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은 천안시에 총 8개가 있었으며, 신규 및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교지역의 사업장은 총 6,279개, 총관측치는 14,675개였다.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은 총 10개가 있었으며, 비교지역의 사업장은 총 8,795개, 총 관측치는 21,250개였다.

4.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범위와 거리구간 설정

분석대상 지역은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대상 지역 내에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이 아닌 소매업 사업장의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그러나 신규 대형 사업장의 입지에 따른 영향은 공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달리하거나, 분석대상 지역 내 거리구간을 구분하였다.

우선, 분석대상 지역 자체의 공간적 범위를 달리하였을 때 소매업 사업

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의 범위를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의 반경이 0m, 250m 미만, 500m 미만, 1,000m 미만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비교지역과 비교하였다. 여기서 0m는 신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좌표와 동일한 소매업 사업장들을 포함하며, 대형 소매업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이상으로 정의된 비교지역을 다양한 공간범위의 분석대상 지역과 각각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지역 내에서 거리구간별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을 0m, 0~250m 미만,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에는 비교지역을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미만 지역으로 선정하고, 비교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거리구간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의 각 거리구간을 비교하여 사업장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3절 분석결과

제3절에서는 천안시와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 간 비교를 통해 총사업장 수와 총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각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산업 및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본다.

1. 총사업장 수 변화

가.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별 분석

<표 5-1>과 <표 5-2>는 각각 천안시와 청주시의 공간 범위별 분석대

상 지역과 1,000m 이상 지역으로 정의된 비교지역에서의 총사업장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대상 지역이 2012년과 2013년에 신규 개업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인근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총사업장 수는 2013~2015년 기간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연도별 총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천안시와 청주시 두 지역 모두에서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미만 지역의 총사업장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의 1,000m 미만인 경우, 2013년 총 140개의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고, 2014년에 208개, 2015년에는 267개로 늘어났다. 동 기간에 비교지역의 총사업장 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3년 총 7,932개의 사업장이 있었고, 2014년 8,131개, 2015년에는 9,062개로 증가하였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2013년에 비해 2014년과 2015년에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에서 총사업장 수의 증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사업장 수 증가 추세는 분석대상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표 5-1〉 총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단위: 개)

연도	분석대상 지역				비교 지역
	0m	<250m	<500m	<1,000m	
2013	24	33	71	140	7,932
2014	45	56	126	208	8,131
2015	64	82	187	267	9,062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단위: 개)

연도	분석대상 지역				비교 지역
	0m	<250m	<500m	<1,000m	
2013	37	42	117	295	10,707
2014	78	105	194	369	10,823
2015	127	170	283	495	12,327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3〉 2013년 기준 총사업장 수 표준화(천안시)

(단위: 개)

연도	분석대상 지역				비교 지역
	0m	<250m	<500m	<1,000m	1,000m 이상
2013(개업 기준 연도)	100	100	100	100	100
2014(개업 후 1년)	188	170	177	149	103
2015(개업 후 2년)	267	248	263	191	114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4〉 2013년 기준 총사업장 수 표준화(청주시)

(단위: 개)

연도	분석대상 지역				비교 지역
	0m	<250m	<500m	<1,000m	1,000m 이상
2013(개업 기준 연도)	100	100	100	100	100
2014(개업 후 1년)	211	250	166	125	101
2015(개업 후 2년)	343	405	242	168	115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과 〈표 5-2〉에서 발견되는 총사업장의 증가 추세는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지가 인근 지역의 소매업 사업장 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인근 지역이 아닌 비교 지역에서도 소매업 사업장 증가 추세가 발견되었다. 이는 소매업 전체의 사업장 증가 추세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입지 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매업 전체의 증가 추세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사업장 수 증가와 비교 지역에서의 사업장 수 증가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의 사업장 수의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장 수 증가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다. 직접 비교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사업장 수를 100으로 하여 각 연

도별 사업장 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였다. <표 5-3>과 <표 5-4>는 각각 천안시와 청주시의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의 사업장 수를 표준화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준화된 사업장 수를 이용하여 (식 5-1)과 같이 2013~2014년과 2014~2015년 기간에 대해서 분석대상 지역의 표준화된 총사업장 수 증가에서 비교지역의 표준화된 총사업장 수 증가를 차감하는 이중차분을 시행하였다.

$$\begin{aligned}
 & D_{(2013 \sim 2014)} \\
 &= \left[Y_{\text{(분석대상 지역)}}^{\text{(개업 후 1년)}} - Y_{\text{(분석대상 지역)}}^{\text{(개업 기준 연도)}} \right] - \left[Y_{\text{(비교 지역)}}^{\text{(개업 후 1년)}} - Y_{\text{(비교 지역)}}^{\text{(개업 기준 연도)}} \right] \\
 & D_{(2014 \sim 2015)} \\
 &= \left[Y_{\text{(분석대상 지역)}}^{\text{(개업 후 2년)}} - Y_{\text{(분석대상 지역)}}^{\text{(개업 후 1년)}} \right] - \left[Y_{\text{(비교 지역)}}^{\text{(개업 후 2년)}} - Y_{\text{(비교 지역)}}^{\text{(개업 후 1년)}} \right]
 \end{aligned}
 \tag{5-1}$$

<표 5-5>와 <표 5-6>은 이중차분법으로 계산한 분석대상 지역에서의 표준화된 사업장 수 변화를 각각 천안시와 청주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표 5-5),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입지한 1,000m 미만 인근 지역에서 소매업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수의 증가는 2014~2015년 기간에 비해서 2013~2014년 기간에 같거나 더 큰 증가를 보였다. 2013~2015년 기간 총합계를 기준으로 공간 범위별 소매업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보면,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내를 나타내는 0m에서 2013년에 비해 1.52배 사업장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

<표 5-5>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천안시)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250m	<500m	<1,000m
D(2013~2014)	85	67	75	46
D(2014~2015)	67	67	74	30
전 체	152	134	149	76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6〉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청주시)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250m	<500m	<1,000m
D(2013~2014)	110	149	65	24
D(2014~2015)	118	141	62	29
전 체	228	290	127	53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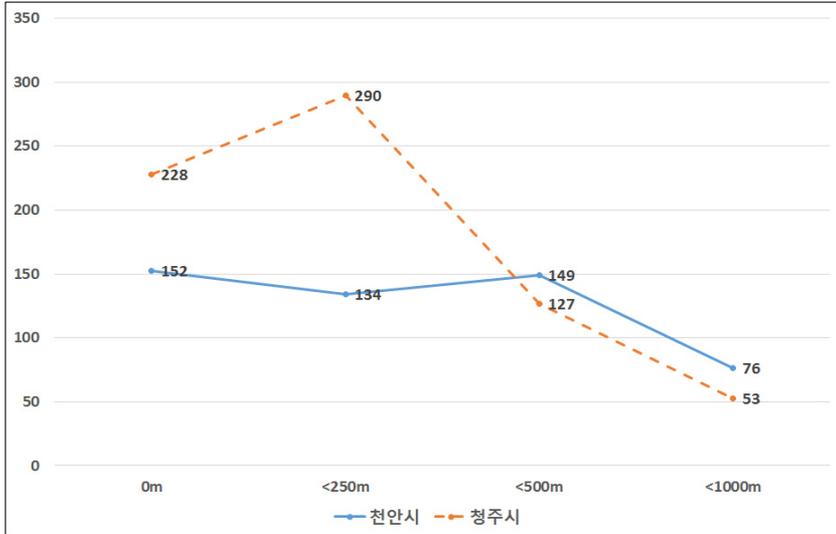
를 250m 미만으로 확장할 경우, 사업장 수가 1.34배, 500m 미만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1.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0m 미만으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0.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수 증가 정도가 공간 범위를 500m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표 5-6)에도 1,000m 미만 인근 지역에서 소매업 사업장 증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우선 2013~2014년 기간의 사업장 수 증가가 거리구간에 따라서는 2014~2015년 기간에 비해서 작은 경우가 있었다. 0m와 1,000m 미만 거리구간에서는 2014~2015년 기간의 사업장 수 증가가 2013~2014년 기간에 비해 많았지만, 250m 미만 및 500m 미만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발견되었다. 2013~2015년 기간 총합계를 기준으로 한 인근 지역의 공간 범위별 사업장 수 변화에서도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는데, 0m에서는 2013년에 비해 2.28배, 250m 미만에서는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천안시 경우보다 더 큰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500m 미만에서는 1.27배, 1,000m 미만에서는 0.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천안시의 경우에 비해 사업장 수 증가 정도가 250m 이상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는 이중차분법으로 계산된 2013~2015년 기간의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증가 정도를 천안시와 청주시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천안시의 사업장 수 증가 정도는 500m 미만까지 1.34~1.52배로 안정적이며, 공간 범위가 1,000m로 확장될 때 0.76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주시는 공간 범위가 250m 미만일 때 가장 큰 증가 정도를 보이고, 250m 이상일 때는 감소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

[그림 5-2]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총사업장 수)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시의 경우,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이내에서 기존의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존재하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입점의 영향 정도가 청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장 증가가 나타나는 공간 범위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것으로 추측된다.

나. 분석대상 지역 내 거리구간별 분석

[그림 5-2]에서 발견된 천안시와 청주시의 사업장 증가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의 거리구간을 0m, 0~250m 미만,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별 사업장 수 증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비교지역을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져 있고, 2012년 이전에 개업한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미만인 지역을 선정하였고, 비교지역 내 거리구간별 사업장 수를 계산하

였다. 천안시와 청주시에 대해서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의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는 <표 5-7>~<표 5-10>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 간의 비교를 위해서 각 연도별 사업장 수를 2013년 기준으로 표준화를 한 후에 이중차분법으로 총사업장 수의 증가 정도를 계산하였다.

천안시와 청주시의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는 <표 5-11>과 <표 5-12>에 제시되어 있다. 천안시의 경우, 0m, 0~250m 미만, 250~500m 미만 구간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장 수 증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2015년 기간의 경우, 500~1,000m 미만 구간에서 오히려 사업장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도 천안시와 유사했으나, 500~1,000m 미만 구간에서 사업장 수 감소는 2013~2014년 기간에 나타났다. 천안시와 청주시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0m와 0~250m 미만 구간에서의 증가 정도는 청주시가 더 크지만, 250~500m 미만 구간에서는 천안시의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분석대상 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24	9	38	69
2014	45	11	70	82
2015	64	18	105	80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8>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비교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183	453	1,228	1,655
2014	207	455	1,256	1,658
2015	268	466	1,397	1,905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9〉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분석대상 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37	5	75	178
2014	78	27	89	175
2015	127	43	113	212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0〉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비교 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215	1,477	1,117	2,259
2014	226	1,369	1,192	2,358
2015	262	1,450	1,270	2,717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1〉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천안시)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D(2013~2014)	74	22	82	19
D(2014~2015)	46	75	81	-18
전 체	120	97	163	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2〉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사업장 수, 청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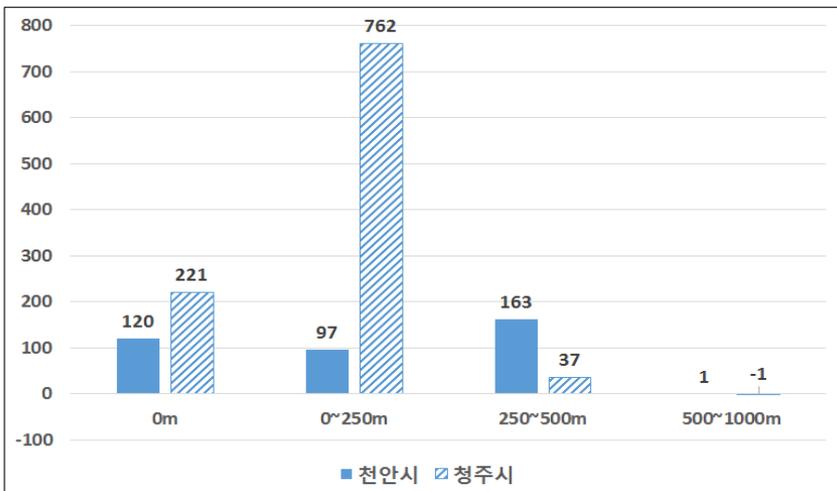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D(2013~2014)	106	447	12	-6
D(2014~2015)	116	315	25	5
전 체	221	762	37	-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그림 5-3]은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를 2013~2015년 누적 합계로 천안시와 청주시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사업장 증가의 정도가 거리구간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0m에서 2.21배, 0~250m 미만에서 7.62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50~500m 미만에서는 0.37배 증가에 머물렀고, 500~1,000m 미만에서는 0.01배 감소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천안시는 0m에서 1.2배, 0~250m 미만에서 0.97배 증가하였지만, 250~500m 미만에서는 1.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보였다. 500~1,000m 미만에서는 0.01배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천안시 및 청주시에서의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입점이 인근 지역 소매업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500m 미만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천안시의 경우에는 신규 입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기존 상권이 없던 청주시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향의 범위는 기존 상권이 없던 지역보다는 기존 상권이 있던 지역에서 더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3) 거리구간별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총사업장 수)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2. 총종사자 수 변화

가.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별 분석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입점에 따른 인근 지역의 총사업장 수 변화에 이어서 총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본다. <표 5-13>과 <표 5-14>는 천안시와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과 1,000m 이상 비교지역의 총종사자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총사업장 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총종사자 수의 증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다르게 하더라도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 간의 비교를 위해 총종사자 수를 2013년 기준으로 표준화한 후, 이중차분을 계산한 결과는 <표 5-15>와 <표 5-1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기간을 2013~2014년 및 2014~2015년으로 구분하더라도 종사자 증가는 천안시와 청주시 모두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2013~2014년 기간의 종사자 증가와 2014~2015년 기간의 종사자 증가는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 설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천안시의 경우, 분석대상 지역을 0m, 500m 미만, 1,000m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는 2013~2014년 기간의 종사자 증가가 2014~2015년 기간에 비해서 컸다. 그러나 250m 미만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그 반대였다. 청주시의 경우, 0m를 제외하면 2013~2014년 기간의 종사자 증가가 2014~2015년 기간보다 많았다.

<표 5-13> 총종사자 수 변화(천안시)

(단위: 개)

	분석대상 지역				비교 지역
	0m	<250m	<500m	<1,000m	1,000m 이상
2013	35	46	133	252	11,810
2014	57	69	199	319	12,031
2015	76	99	262	386	13,238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4〉 총종사자 수 변화(청주시)

(단위: 개)

	분석대상 지역				비교 지역
	0m	<250m	<500m	<1,000m	1,000m 이상
2013	94	100	225	495	15,472
2014	149	301	461	734	16,231
2015	229	347	561	882	17,98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그림 5-4]는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별 이중차분 결과를 천안시와 청주시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와 종사자 수 증가는 2013~2015년 기간 총합계로 나타내었다. 천안시의 경우, 분석대상 지역을 0m로 설정한 경우에 2013년에 비해 종사자가 1.0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m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1.03배, 500m 미만은 0.85배, 1,000m 미만의 경우에는 0.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 종사자가 1.27배 증가하였고, 250m 미만에서는 2.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가 정도를 보였다. 500m 미만의 경우에는 1.33배, 1,000m 미만의 경우에는 0.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대형 소매 사업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 입점이 발생한 청주시의 경우, 총종사자 수 증가가 천안시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250m 미만으로 공간 범위를 설정했을 때 가장 큰 증가 정도를 보였다.

〈표 5-15〉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천안시)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250m	<500m	<1,000m
D(2013~2014)	61	48	48	25
D(2014~2015)	44	55	37	16
전 체	105	103	85	4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6〉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청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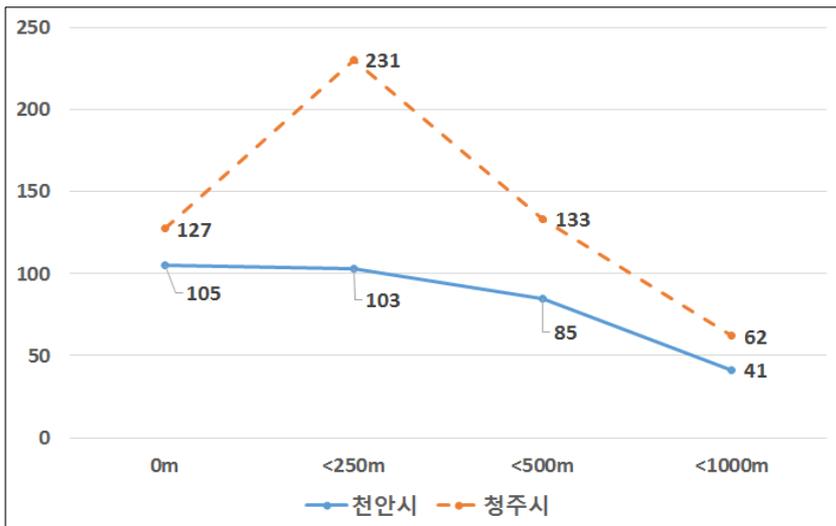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250m	<500m	<1,000m
D(2013~2014)	54	196	100	43
D(2014~2015)	74	35	33	19
전 체	127	231	133	62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그림 5-4〉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총종사자 수)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나. 분석대상 지역 내 거리구간별 분석

신규 소매업 사업장 입점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의 종사자 수 변화를 거리구간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을 0m, 0~250m 미만,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거리구간별 비교 지역 구성을 위해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져 있고, 2012년 이전에 개업한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1,000m 미

84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만인 지역을 선정하고, 분석대상과 동일하게 거리구간을 구분하였다.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의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는 <표 5-17>~<표 5-20>에 제시되어 있다. 총사업장 수 분석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 간의 비교를 위해서 각 연도별 종사자 수를 2013년 기준으로 표준화를 한 후에 이중차분을 계산하였다.

<표 5-17>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 변화(천안시 분석대상 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35	11	87	119
2014	57	12	130	120
2015	76	23	163	124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8>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 변화(천안시 비교 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351	1,059	1,763	2,579
2014	367	970	1,825	2,566
2015	510	1,000	2,010	2,84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19> 거리구간별 총종사자 수 변화(청주시 분석대상 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94	6	125	270
2014	149	152	160	273
2015	229	118	214	32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0> 거리구간별 총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비교지역)

(단위: 개)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2013	302	2,123	1,452	3,130
2014	440	1,981	1,611	3,530
2015	416	2,121	1,717	3,793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1>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천안시)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D(2013~2014)	58	17	46	1
D(2014~2015)	14	97	27	-7
전 체	72	115	73	-6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2>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총종사자 수, 청주시) (단위: 개)

비교 지역 대비 분석대상 지역	0m	0~250m	250~500m 미만	500~1,000m 미만
D(2013~2014)	13	2,440	17	-12
D(2014~2015)	93	-573	36	9
전 체	106	1,867	5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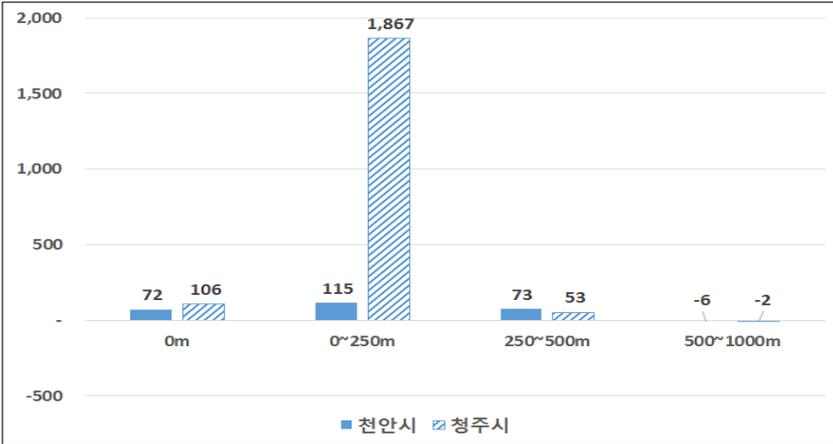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1>과 <표 5-22>는 천안시와 청주시의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2013~2014년 기간에는 모든 거리구간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2015년 기간에는 500~1,000m 미만 구간에서 종사자 수가 0.07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기간과 2014~2015년 기간의 종사자 수 증가를 비교하면, 0~250m 미만 구간을 제외하면 2013~2014년 기간의 종사자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2013~2014년 기간에는 500~1,000m 미만 구간에서 종사자 수가 0.12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4~2015년 기간에는 0~250m 미만 구간에서 종사자 수가 5.73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기간과 2014~2015년 기간의 종사자 수 증가를 비교하면, 천안시 경우와는 반대로 0~250m 미만 구간을 제외하면 2014~2015년 기간의 종사자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는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를 2013~2015년 누적 합계로 천안시와 청주시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신규 입점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0m에서는 총종사자 수가 2013년에 비해

[그림 5-5] 거리구간별 천안시와 청주시의 이중차분 결과 비교(총종사자 수)

(단위: 개)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0.72배 증가하였고, 0~250m 미만 구간에서는 1.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500m 미만 구간에는 0.73배 증가하였으나, 500~1,000m 미만 구간에는 0.06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는 1.06배 증가하였고, 0~250m 미만 구간에서는 18.6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0~500m 미만 구간에는 0.53배로 증가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500~1,000m 미만 구간에는 종사자가 0.02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청주시의 거리구간별 종사자 수 변화는 앞서 살펴본 총사업장 수의 경우와 유사하게,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의 영향이 500m 미만에서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0m 및 0~250m 미만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의 종사자 수 증가가 더 크고, 250~500m 미만 구간에서는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의 종사자 수 증가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0~250m 미만 구간에서 종사자 수가 무려 18.67배 증가하여 이 거리구간에서 총사업장뿐만 아니라 총종사자 증가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존재하여 상권이 이미 형성된 지역에서의 신규 대형 입점보다는,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었던 지역에서의 신규 입점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크고, 특히 250m 미만의 국지적 인근 지역에서

집중됨을 보여주고 있다.

3.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

분석대상 지역과 비교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은 500m 미만의 인근 지역에서 유의미한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에 변화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의 소매업 산업구조 및 종사자 분포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천안시와 청주시의 분석대상 지역을 거리 구간별로 구분하여 산업소분류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은 <표 5-23>~<표 5-26>에 제시되어 있다.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0m의 경우를 살펴보면(표 5-23), 2013~2015년 기간에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이 38개 증가하였고,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 사업장이 각각 1개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사업장 수 변화가 없었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이 39개 증가하였고, 2인 사업장이 3개, 5인 이상 사업장이 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인 사업장은 2개, 4인 사업장은 1개씩 각각 감소하였다.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 내에 위치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며, 고용 증가는 1인 자영업자의 증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50m 미만 구간에서는(표 5-2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5개, ‘무점포 소매업’ 3개,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개 사업장이 증가하였고, 다른 사업 분야에는 변화가 없었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이 9개 증가하였고, 3인 및 4인 사업장이 각각 1개씩 증가하였다. 반면 2인 사업장은 2개가 감소하였다.

250~500m 미만 구간에서도(표 5-2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2013~2015년 기간에 64개가 증가하여 다른 거리구간보다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개,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은 1개 사업장이 증가하였고,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사업장은 1개가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별 사

업장 수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이 55개 증가하였고, 2인 사업장 9개, 4인 사업장 2개, 3인 사업장이 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1,000m 미만 구간의 경우(표 5-2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이 7개 증가하였고,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개,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3개,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사업장은 1개가 증가하였다. 반면 ‘무점포 소매업’ 사업장은 3개가 감소하였고, ‘종합 소매업’ 사업장은 1개가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의 경우, 1인 사업장은 10개가 증가하였고, 3인 사업장은 4개, 2인 사업장은 2개가 증가하였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3개가 감소하였고, 4인 사업장은 2개가 감소하였다.

〈표 5-23〉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0m)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1	43	59	3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0	0	1	1
무점포 소매업	0	0	1	1
종합 소매업	0	0	0	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	1	1	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0	0	0	0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	1	1	0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	0	1	0
연료 소매업	0	0	0	0
1인	19	37	58	39
2인	0	4	3	3
3인	4	4	2	-2
4인	1	0	0	-1
5인 이상	0	0	1	1
총사업장 수	24	45	64	40
총종사자 수	35	57	76	4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4〉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0~250m 미만)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7	9	12	5
무점포 소매업	1	1	4	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	1	2	1
종합 소매업	0	0	0	0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0	0	0	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0	0	0	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0	0	0	0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	0	0	0
연료 소매업	0	0	0	0
1인	7	10	16	9
2인	2	1	0	-2
3인	0	0	1	1
4인	0	0	1	1
5인 이상	0	0	0	0
총사업장 수	9	11	18	9
총종사자 수	11	12	23	12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5〉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250~500m 미만)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8	54	92	6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8	13	11	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	1	2	1
종합 소매업	0	0	0	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0	0	0	0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	0	0	0
무점포 소매업	0	1	0	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	1	0	-1
연료 소매업	0	0	0	0
1인	22	45	77	55
2인	9	13	18	9
3인	3	6	4	1
4인	1	2	3	2
5인 이상	3	4	3	0
총사업장 수	38	70	105	67
총종사자 수	87	130	163	76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6〉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천안시, 500~1,000m 미만)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7	34	34	7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	14	14	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	8	8	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	4	5	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6	5	6	0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	0	0	0
종합 소매업	10	11	9	-1
무점포 소매업	7	6	4	-3
연료 소매업	0	0	0	0
1인	55	69	65	10
2인	2	2	4	2
3인	1	4	5	4
4인	5	2	3	-2
5인 이상	6	5	3	-3
총사업장 수	69	82	80	11
총종사자 수	119	120	124	5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의 경우, 거리구간에 상관없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250~500m 미만 구간에서의 증가가 많았다. [그림 5-3]의 거리구간별 이중차분 결과에서도 동일한 거리구간에서 유의미한 사업장 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거리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50m 미만 구간에서는 ‘무점포 소매업’ 사업장이 3개 증가한 반면, 500~1,000m 미만 구간에서는 ‘무점포 소매업’ 사업장이 3개 감소하였다. 또한 250~500m 미만 구간에서는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사업장이 1개 감소하면서 없어졌지만, 500~1,000m 미만 구간에서는 3개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소매업 산업구조 변화는 신규 대형 소매사업장 입점 이후, 기존의 상권 분포가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의 거리구간별 산업 및 종사자 수 분포 변화는 <표 5-27>~<표 5-30>에 제시되어 있다.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

〈표 5-27〉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0m)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7	63	108	8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	3	6	4
종합 소매업	0	2	3	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	6	7	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	2	1	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	1	1	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	1	1	0
연료 소매업	0	0	0	0
무점포 소매업	0	0	0	0
1인	23	59	95	72
2인	3	4	12	9
3인	7	6	10	3
4인	2	3	2	0
5인 이상	2	6	8	6
총사업장 수	37	78	127	90
총종사자 수	94	149	229	135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28〉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0~250m 미만)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0	17	24	24
종합 소매업	2	3	5	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	4	4	3
무점포 소매업	1	1	4	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0	0	2	2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0	1	2	2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0	0	1	1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	1	1	0
연료 소매업	0	0	0	0
1인	4	12	25	21
2인	1	3	7	6
3인	0	5	5	5
4인	0	1	1	1
5인 이상	0	6	5	5
총사업장 수	5	27	43	38
총종사자 수	6	152	118	112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부터 0m의 경우(표 5-27), 2013~2015년 기간에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이 81개 증가하였고,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개, ‘종합 소매업’ 3개,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은 2개 사업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이 72개 증가하였고, 2인 사업장 9개, 3인 사업장 3개, 5인 이상 사업장은 6개 증가하였다. 0~250m 미만 구간의 경우(표 5-28),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이 24개 증가하였고, ‘종합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의 경우는 각각 3개 사업장이 증가하였다.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및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은 각각 2개 사업장이 증가하였고,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사업장은 1개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의 경우, 1인 사업장이 21개 증가하였고, 2인 사업장이 6개, 3인 및 5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5개 증가하였다. 4인 사업장은 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500m 미만 구간의 경우(표 5-29), ‘무점포 소매업’ 사업장이 10개 증가하였고,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은 8개,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및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 각각 6개씩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및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사업장이 각각 3개,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2개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1인 사업장이 25개 증가하였고, 4인 사업장 5개, 2인 사업장 4개, 5인 이상 3개, 3인 사업장은 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1,000m 미만의 경우(표 5-30), ‘무점포 소매업’ 사업장이 20개 증가하였고,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7개, ‘종합소매업’ 및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은 각각 5개 증가하였다. 그 외에 ‘연료 소매업’ 4개,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사업장은 1개 증가하였다. 반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은 5개가 감소하였고, ‘정보통신장비 소매업’은 3개가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의 경우, 1인 사업장이 22개 증가하였고, 2인 사업장 8개, 5인 이상 사업장 2개, 3인 및 4인 사업장이 각각 1개씩 증가하였다.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천안시의 경우와 다르게 다양한 소매업 산업분야의 사업장이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외에도, ‘음식

〈표 5-29〉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250~500m 미만)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무점포 소매업	15	18	25	10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	16	19	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8	10	14	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5	25	31	6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	2	4	3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	4	5	3
종합 소매업	11	12	13	2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	1	1	0
연료 소매업	1	1	1	0
1인	60	67	85	25
2인	4	3	8	4
3인	5	8	6	1
4인	1	2	6	5
5인 이상	5	9	8	3
총사업장 수	75	89	113	38
총종사자 수	125	160	214	89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표 5-30〉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청주시, 500~1,000m 미만)

(단위: 개, 명)

	2013	2014	2015	2013~2015 차이
무점포 소매업	26	32	46	20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8	25	35	7
종합 소매업	32	34	37	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30	32	35	5
연료 소매업	5	5	9	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2	11	13	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	4	4	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1	7	8	-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30	25	25	-5
1인	152	144	174	22
2인	5	8	13	8
3인	7	11	8	1
4인	4	2	5	1
5인 이상	10	10	12	2
총사업장 수	178	175	212	34
총종사자 수	270	273	321	51

자료: 통계청 행정 DB를 이용하여 필자 정리.

료품 및 담배 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사업장 등이 250~500m 미만 구간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가 0m 및 0~250m 미만 구간에서 두드러지지만, 천안시의 경우와는 다르게 250~500m 미만 및 500~1,000m 미만 구간에서는 ‘무점포 소매업’보다 사업장 수 증가가 적었으며, 특히 500~1,000m 미만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이 특히 500m 미만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시에 비해 청주시에 보다 다양한 소매업 산업이 증가한 것은 기존 상권 유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 인근에서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기존에 다양한 소매업 산업이 분포했기 때문에, 신규 입점 인근에서는 다양한 소매업 산업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신규 입점으로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고 다양한 소매업 산업이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리구간별 소매업 산업분포에도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소 결

1. 주요 분석결과

본 연구는 통계청의 사업체 행정 DB를 이용하여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신규 입점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천안시와 청주시에 2012년 및 2013년에 신규 개업한 ‘백화점’ 또는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1,000m 미만 인근 지역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은 2012년 이전에 개업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존재한 지역이었으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는 지역이었다. 분석대

상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고,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비교지역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비교지역은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며, 두 번째 비교지역은 신규 대형 사업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2012년 이전에 개업한 기존의 대형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미만인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가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달리하거나, 분석대상 지역 내 거리구간을 구분하였다.

먼저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입점 이후의 변화를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외 총소매업사업장 수로 살펴보았다. 천안시의 경우,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0m, 250m 미만, 500m 미만으로 점차 확대했을 때, 사업장 수가 2013년에 비해 1.34~1.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 범위를 1,000m 미만으로 확장했을 때는 0.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 정도가 감소하였다. 청주시의 경우, 분석대상 범위를 250m 미만으로 설정했을 때 총사업장 수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가 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간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경우에는 1.27배(500m 미만) 및 0.53배(1,000m 미만)로 증가 정도가 감소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을 거리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거리구간별 증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안시의 경우, 0m에서 1.2배, 0~250m 미만에서 0.97배 증가하였고, 250~500m 미만에서 1.6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500m 이상 구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 2.21배, 0~250m 미만에서는 7.62배 사업장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50m 이상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입점 이후의 변화를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외 총소매업종사자 수로 살펴보았을 때, 천안시는 2013년에 비해 0m에서 1.05배, 250m 미만에서는 1.03배, 500m 미만은 0.8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000m 미만의 경우에는 0.41배 증가하여, 500m 이상에서 종사자 수의 증가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 1.27배, 250m 미만에서는 2.31배, 500m 미만 1.33배, 1,000m 미만의 경우에는 0.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50m 이상 범위에서 증가 정도가 크

게 감소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을 거리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0m 0.72배, 0~250m 미만 1.15배, 250~500m 미만 0.73배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0~1,000m 미만 구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청주시의 경우, 0m에서는 1.06배, 0~250m 미만 18.67배, 250~500m 미만 0.53배 종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1,000m 미만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대상 지역의 소매업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 보았을 때,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거리구간에 상관없이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50~500m 미만 구간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장 증가가 많았다. 그 외의 거리구간에서는 ‘무점포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감이 나타나 신규 입점 이후 소매업 산업의 공간 분포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주시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천안시의 경우와 다르게 다양한 소매업 산업분야의 사업장 증가가 250~500m 미만 구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는 250m 이내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과 거리구간에 상관없이 사업장의 증가는 대부분 1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및 2013년에 신규 입점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 인근 1,000m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입점 후 2년이라는 단기적인 기간이지만 사업장과 종사자 수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Cho et al.(2015)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진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지역상권

의 성장은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기존 상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지역에 2012년 이전에 입점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분석대상 지역의 유형이 구분되었다. 분석결과에서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던 분석대상 지역 보다는 그것이 없었던 지역에서 소매업 사업장과 종사자 수의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입점하는 지역에 기존 상권 유무 및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신규 입점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의 상권 변화는 신규 사업장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이내의 국지적 범위에 집중되고, 거리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 소매업 사업장과 종사자 수의 변화는 분석대상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던 분석대상 지역(천안)에서는 신규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250~500m 미만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사업장 수의 증가가 나타났고, 0~250m 미만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종사자 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었던 분석대상 지역(청주)에서는 0~250m 미만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가 1,000m 미만의 모든 구간에서 나타났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500m 이상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소매업 사업장의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거리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의 국지적 범위는 기존 상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체 행정 DB의 사업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간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에 따른 영향을 1,000m 이내의 국지적

공간 범위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자료의 장점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의 집계자료보다 더욱 세밀한 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이 지역 상권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다양한 통계분석을 시행하지 못하고 거리구간별 집계자료만을 사용하였다는 점, 분석기간이 개점 후 2년에 국한된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또한 분석대상이 된 도시를 두 곳으로만 한정하여 기존 상권의 특성에 따른 신규 입점의 영향 차이를 보다 다양하게 탐색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고용사회정책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연구 데이터 베이스를 개관하고,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자영업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진입-운영-폐업 중 자영업 진입부터 운영 측면, 특히 운영과 관련하여 자영업 소득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해 자영업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형 종합소매점의 입점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장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겠다. 제2장에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통계조사를 중심으로 개황을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영업 인원 파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시의성 높은 자료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으며, 자영업 업종 분포와 지역별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매년), 경제총조사(5년)가 있다. 자영업 매출 및 부가가치(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각종 비용 항목), 영업이익, 점포 면적, 고용인원, 유무형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제총조사(5년, 전수), 도소매업조사(매년, 표집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매년, 표집조사, 1만 개, 13개 업종)가 있다. 상가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제

총조사, 도소매업조사(매년, 표집조사), 한국감정원(매년, 표집조사, 상권으로만 통계공표하나, 상가의 크기, 층별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여 회귀분석 목적에서는 활용가능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가임대료 정보의 가장 큰 한계는 보증금, 권리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이력, 소득, 가구구성 등 인적 이력과 인구학 특성 관련 정보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를 활용할 수 있다. 자영업 매출 및 부가가치, 영업이익, 면적, 고용인원 파악, 자영업 개인의 인적 특성 파악, 가구 현황 파악은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사회보험(임금은 건보 월보수)+국세 중 일용근로소득자 자료, 자영업자 인원 자료+각종 통계청의 센서스 자료]가 완성되면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 실시간 매출 동향, 업종별 자영업 창폐업 정보는 카드사 매출 정보(분석 요청에 상당한 돈이 들어감), 국세청 생활업종 창업 폐업 관련 월별 자료 공개 사이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의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 자영업의 노동시장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사업체의 산업동향을 보는 자료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의 가구, 인구학적 정보를 연계할 수 없어 양자를 아우르는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한계로 인해 자영업 진입-성공과 실패-은퇴 또는 퇴출의 전 과정을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데이터 현황을 볼 때 향후 몇 년 이내에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면 사업체의 매출과 비용,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료와 인구, 가구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센서스와 행정자료 연계가 가능한 5년 간격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전수자료를 이용해 자영업 노동공급부터 산업적 측면까지 연구가 가능한 방향으로 데이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구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최근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든지, 5년 생존율이 20~30%에 불과한 음식점 등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 경제활동등록부가 구축되더라도 통계청이 원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를 볼 때 심화된 분석에 필요한 연계기 제공 등을 할지, 얼마나 세분된 자료를 원자료로 공개할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또 다른 해결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더라도, 권리금, 보증금, 상관특성-전통시장인지 등-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보통 월세는 파악되지만, 보증금과 권리금은 파악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화가 크게 진행되어 왔는데 가맹비 등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급되는 비용은 조사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자영업 운영에서 크게 중요한 이들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직 후 이행경로 분석이 상당히 축적되어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직 후 이행경로나 실직 후 가구 소득 상황변동 등의 분석 자체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었으나, 향후 경제활동등록부가 완성되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 진입과 소득을 분석하였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원래부터 자영업 일자리에 일해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유해 현재의 자영업 일자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 경유형 창업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 상용직의 경우 상용직 일자리를 못 구할 경우 자영업 선택을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영업인 사람들은 자영업 일자리를 다음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상용직 일자리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용-자영 간 이동만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번 자영업이 첫 일자리인 사람들의 비중은 2001년 15.5%에서 2016년 7.2%까지 떨어졌으며,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한 비중은 대략 60% 초반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는 15년 전이나 2016년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있다가 현재 자영업 일자리로 바뀐 사람들은 2001년 23.6%에서 2016년 30.3%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밀려나서든 경험을 쌓아서 창업하는 것이든 전직 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비중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

는 경력 창업 비중도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전직 종사상 지위별 평균 연령과 평균 지속기간을 보면, 이전에 다른 일자리가 없었다는 자영업자는 남성은 평균 51세, 이 일자리의 지속기간은 평균 21년으로, 대략 30세 근방에 시작해 20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 56세였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약 14년으로 대략 40세 초반에 시작해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속기간과 연령을 가지고 해서 평균적인 시작연령을 보면 현재 자영업자는 30대 후반에 일자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경험을 분석해보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우리나라 연령대별 자영업 취업 비중은 고령층이 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나, 연령대별 유량으로 자영업 경험 비중을 분석해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자영업 진입도 활발하며 고령층은 오히려 자영업 경험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연령대에서 자영업이 많다고 해서 고연령대에 자영업 진입이 많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젊어서부터 자영업에 진입해 성공한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영위한 결과 고령층에 자영업이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히 전 직장 없는, 전직 상용직인, 전직 고용주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령-소득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로 분석해볼 경우 임금근로자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5세를 전후한 시기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이 임금근로자와 동일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주축이 나이 들면서 임금근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자영업으로 밀려들어왔으면 나타나기 힘든 패턴이다. 그보다는 자영업 노동시장도 임금근로 시장처럼 자신에게 맞는 업태를 탐색해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소득이 상승하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서 소득력이 약화되는 특성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2015 경제총조사 원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집계자료, 통계청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변수가 예측한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쟁도가 낮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온라인거래를 이용하는 자영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낮았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은 높은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가구 구조의 차이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구조의 변화는 자영업의 경영상황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구주 비중은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가 자영업의 경영상황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구조는 자영업 경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와 60대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자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구구조의 영향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업종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예상대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인구·가구 구조가 영업이익률에 미친 영향의 추정에는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다소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자영업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가구 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소비지의 불일치와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해당 업종의 자영업의 집중을 적절히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통계청의 사업체 행정 DB를 이용하여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신규 입점하였을 때 인근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천안시와 청주에서 2012년 및 2013년에 신규 개업한 ‘백화점’ 또는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1,000m 미만 인근 지역을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시 분석대상 지역은 2012년 이전에 개업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존재한 지역이었으며, 청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는 지역이었다. 분석대

상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고,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비교지역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비교지역은 신규 대형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이상 떨어진 지역이며, 두 번째 비교지역은 신규 대형 사업장에서 1,0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2012년 이전에 개업한 기존의 대형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1,000m 미만인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가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지역의 공간 범위를 달리하거나, 분석대상 지역 내 거리구간을 구분하였다.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입점 이후의 변화는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외의 중소매업사업장 수 및 종종사자 수의 변화를 2013년 대비 2014년 및 2015년의 증가 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지역의 소매업 산업 및 종사자 수별 사업장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은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및 2013년에 신규 입점한 ‘백화점’ 및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 인근 1,000m 지역에서의 소매업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입점 후 2년이라는 단기적인 기간이지만 사업장과 종사자 수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Cho et al. (2015)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신규 진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에 발생하는 지역상권의 성장은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기존 상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지역에 2012년 이전에 입점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분석대상 지역의 유형이 구분되었다. 분석결과에서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던 분석대상 지역 보다는 그것이 없었던 지역에서 소매업 사업장과 종사자 수의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이 입점하는 지역에 기존 상권 유무 및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신규 입점의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신규 대형 종합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의

상권 변화는 신규 사업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국지적 범위에 집중되고, 거리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대형 소매업 사업장의 입점 이후 소매업 사업장과 종사자 수의 변화는 분석대상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있었던 분석대상 지역(천안)에서는 신규 소매업 사업장으로부터 250~500m 미만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사업장 수의 증가가 나타났고, 0~250m 미만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종사자 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기존 대형 소매업 사업장이 없었던 분석대상 지역(청주)에서는 0~250m 미만 구간에서 가장 유의미한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사업장의 증가가 1,000m 미만의 모든 구간에서 나타났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500m 이상 지역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 소매업 사업장의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거리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의 국지적 범위는 기존 상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고가영(2014), 「1인 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 권태구·성낙일(2014),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경제분석』 20 (2), pp.56~91.
-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4),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활로인가: 음식점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 (3), pp.79~103.
- 노형식·임진(2014),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KIF 연구보고서 2014-02, 한국금융연구원.
- 박성재·이종임·유대근·조장희(2015),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영향평가 연구시리즈,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 서용구·한경동(2015), 「대형마트 출점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상권분석」, 『유통연구』 20 (2), pp.47~64.
- 손희경(2017),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분석』, 2017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II권, 통계개발원.
- 오상봉(2016), 「자영업의 경영상황」, 이병희·박찬임·오상봉·강병구·김숙경,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pp.27~71.
- 오상봉(근간), 「자영업 경영상황의 변화」, 홍민기·오상봉,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p.4~35.
- 이계임·황윤재·반현정·임승주·진현정·이행신(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식품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보고 R762, 한국농촌연구원.
- 이진면·한정민·김재진·이용호·김바우(2013),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3-31-20, 산업연구원.
- 전용필·강혜정(2018), 「외식업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41 (2), pp.61~79.
- 정선영(2013),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Issue Paper Series No. 2013-15, 한국은행.
- 정소라(2018),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른 소매업 고용구조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정희상(2015),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서울시의 경우」,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 황수경(2011), 「가구 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3 (3), pp.57~85. 한국개발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접속일: 2018. 12. 8), <http://www.law.go.kr/LSW/main.html>.
- Cho, J., H. Chun and Y. Lee(2015), “How does the entry of large discount stores increase retail employment?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3 (3), pp.559~574.

◆ 執筆陣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 발행연월일 | 2018년 12월 24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 발행인 | 배규식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30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8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270-2